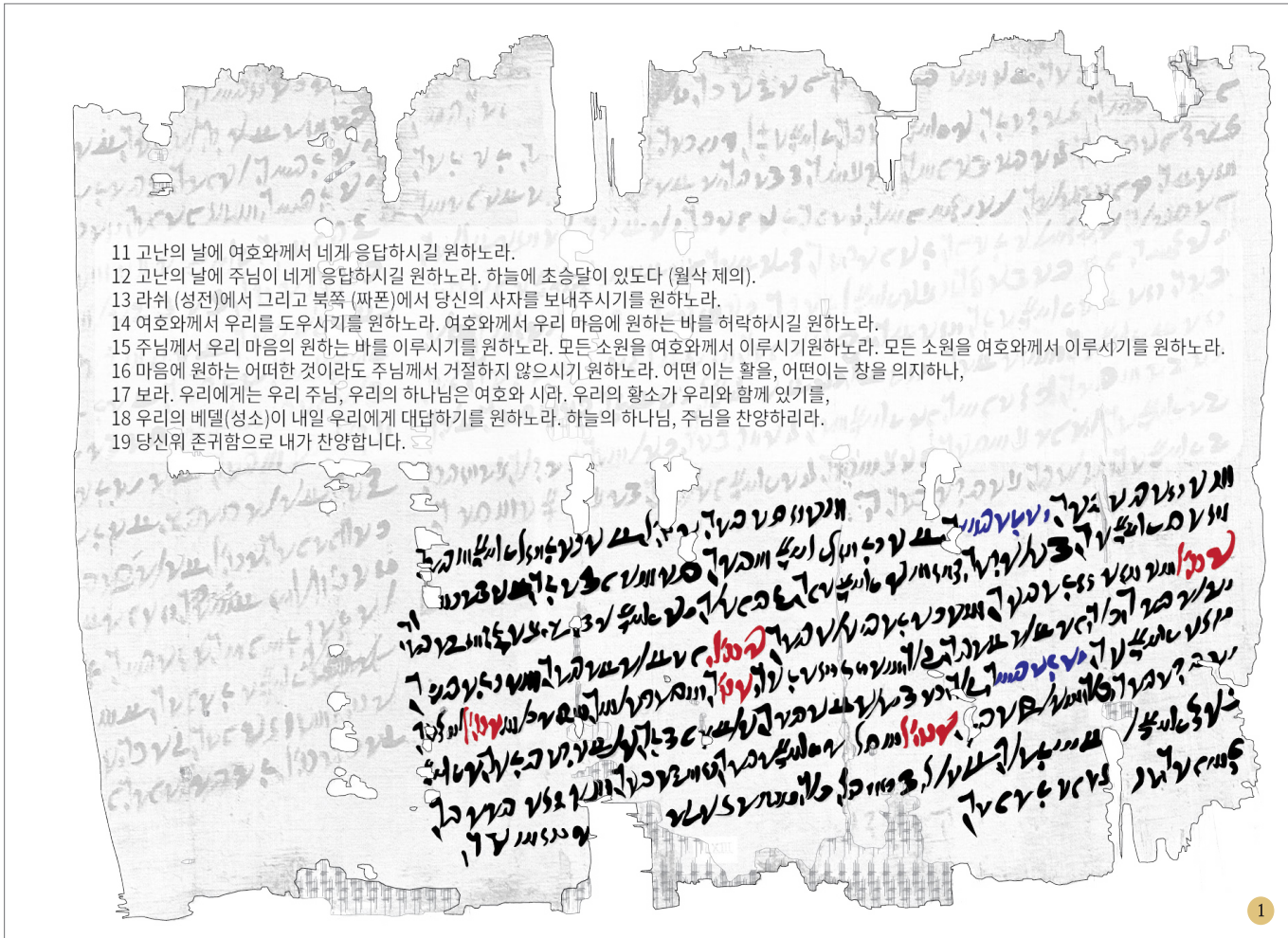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① 파피루스 암헤르스트



지금으로부터 130여년 전에 네덜란드 사람 암헤르스트가 파피루스 (Papyrus) 몇 개를 골동품 수집용으로 사들였습니다. 민중 이집트어체로 쓰여진 이 파피루스 조각을 어떻게 읽는 줄도 몰랐습니다. 학자들도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던 민중 언어 체계를 당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구입한 지 몇 년 뒤, 암헤르스트가 죽고 그 딸이 자기 몫으로 남겨진 골동품들을 하나 둘 내다 팔던 중, 파피루스 암헤르스트 (Papyrus Amherst) 라고 불리는 이 파피루스도 팔려나갔습니다. 파피루스가 세상에 나온지 거의 100년이 되는 1980년대에 이르러야 드디어 해독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시편 20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곧바로 고고학 도서관에 가서 이 파피루스에 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을 파피루스에 써가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시편을 파피루스에 기록하기 100여 년 전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패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과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자 하는 방도를 찾아보겠노라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권력을 쫓아 다녔습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유다를 의탁해야한다는 사람들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유다를 의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싸웠습니다. 두 제국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비교하며, 더 영향력 있고, 더 강한 나라 편에 서야겠기에 자기들의 정치 분석이 더 정확하노라 논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매수해 거짓 예언을 하게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상주의자이자 몽상가라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고, 더러는 자유를 찾아 바빌론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이집트 나일강 상류의 작은 섬 ‘엘레판틴’이라는 곳에서 살던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엘레판틴 섬에서 타향살이를 해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엘레판틴 섬에서 살았던 유다 사람

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리 감사할 만한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2km, 너비가 400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섬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치더라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나마 이집트의 강력한 적이었던 누비아 사람들을 대치하고 있는 군사 기지의 역할도 겸했던 섬이었던지라,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작은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기원전 6세기, 525BCE)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0편을 말이지요.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살 궁리를 하느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던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마련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을 의지했던 유다 사람들이 얻은 것은 지난한

피난 생활일 뿐이었습니다.

낮선 땅,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고난의 때에 유다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이 노래하였던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 이것이 고난이 바뀌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집트의 팍팍한 삶과 나라 잃은 민족의 비극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걸어왔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건대, 내가 의지해야 할 바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과 노래. 유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문화와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풍요는 복이고, 고난은 재앙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 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삶에 못질을 합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광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유익을 주십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더 잘보고, 하나님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난이 유다 백성을 바꾼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만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진설명

① 파피루스 암헤르스트 (Papyrus Amherst)

민중 이집트어체로 쓰여진 이 파피루스 조각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해독이 되었고, 시편 20편과 매우 유사하다. 파피루스에서 빨간색 처리한 부분은 민중 이집트어체로 ‘여호와’, 파란색으로 처리한 부분은 ‘주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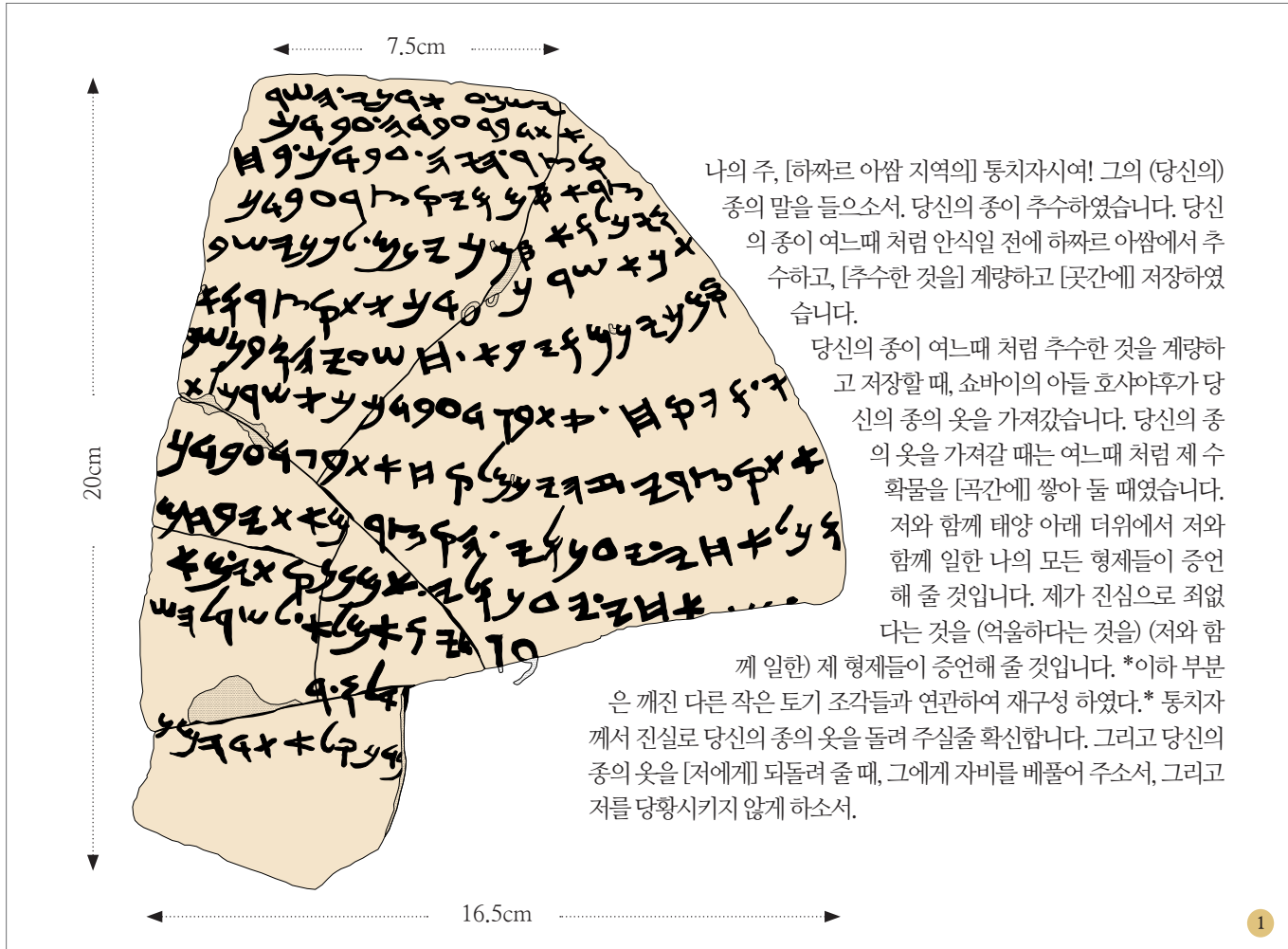
지난 3년간 광림뉴스레터에 연재되었던 <성지순례 이야기>는 지난 달 ‘엔 프랏’을 끝으로 마감되었고, <이스라엘 따라 걷기>란 제목으로 출판되어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유물과 함께 보는 성경과 역사>란 제목으로 새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 메짜드 하샤브야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면서, 동시에 인간, 그리고 모든 숨쉬는 생명체를 위한 쉼의 날입니다. (출 20:8-10; 23:12).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처음 주신 선물은 '일'이 아니라, '쉼', 곧 안식이었습니다. (창 2:1-3) 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켜야하는 창조질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식한 그 날에 함께 쉬어야 하는 의무가 지워졌다고도 말합니다. (Wenham)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고백의 행위가 곧 안식이라는 거지요. 이 거룩한 쉼은 노예나 종, 나그네와 가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 5:12-15)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샤밧'이라는 장(章)에는 하지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39가지로 규정했습니다. (b.Shabbat 7b) 그렇다고 이 서른 아홉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열거한 금지 행동들을 보면, 이윤을 얻거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들을 모두 금지하는 듯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이외에도 도시의 경계에서 960m 이상 밖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또 다른 많은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더 많은 규정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쇼핑을 하

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전기 제품의 전원을 켜거나 끄는 행위, 정원을 가꾸거나,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것 등 말이지요.

처음 이스라엘에 살 때에는 이 안식일 규정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다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쉽니다. 주간 동안 번잡했던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고, 시끌벅적했던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오전과 저녁에 회당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허락되지 않으니, 아이들 학교에서 숙제도 내주지 않습니다. 쉬고 함께 가족도 만들어지고요.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거리의 의자에 앉아서, 집의 계단에 앉아서, 공원의 잔디에 앉아서 그렇게 안식일을 가족과 또 이웃과 더불어 보냅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의 쉼도 없이 '쉼'마저도 '일'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비하면, 안식일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150여 년 전부터 고대 서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벨론의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율법에 대한 성경 지식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 고대 서아시아의 유물들이 1900년대 초반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유사한 풍습과 문화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런 비교 연구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몇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1) 고고학적 유물이 성경의 기록보다 더 가치가 있고, (2) 앗수르(Neo-Assyria)와 바빌론(Neo-Babylon)의 문화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문화보다 그 가치가 우월하기에, (3) 성경은 고고학에 근거한 고대 서아시아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옮겨왔



을 것이라라는 겁니다.

이런 직선적 역사 이해가 발판이 되어서, 남쪽 왕국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7일 주기의 달력을 받아들였고, 안식일 역시 바벨론 포로기와 페르시아 시대(기원전 6-5세기)가 되어서야 유대인 사회에서 확정된 쉼의 날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던 거지요.

이 주장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거의 정설처럼 자리매김 했었습니다. 이 학설을 반박할만한 성경 이외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매우 기계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나오면, 그 성경 구절은 바벨론 포로기, 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요.

1960년에 메짜드 하샤브야후(Mezad Hashavyahu)를 나베(J. Naveh)가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로 7.5~16.5cm, 세로 20cm, 두께는 4~6mm가 되는 토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토기 조각에는 검은색 잉크로 14줄의 히브리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메짜드 하샤브야후라는 지역은 기원전 7세기 때 잠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한 세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 거지요. 구약 시대 중, 대략 요시아 왕의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토기 조각의 기록에는 쇼바이의 아들 호샤야후가 와서는 자기의 옷을 가져갔다고 그 지역의 우두머리 관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호샤야후가 옷을 강탈해 갈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안식일' 전, 추수하고 곡간에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들일 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이 외에 고고학 유물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온 처음이자, 유일한 포로기 이전 시대의 유물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유물은 고고학과 성서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요. 약 80년 간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발견! 이것은 성경을 객관적 역사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진설명

- 1 메짜드 하샤브야후 (Mezad Hashavyahu)**
1960년에 메짜드 하샤브야후 (Mezad Hashavyahu) 지역에서 나베(J. Naveh)가 발굴한 히브리어 문장으로 쓰여진 토기조각에 적혀진 안식일.
- 2 이스라엘의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 거리 모습. 주중에 번잡한 도로가 안식일이 되면 차 없는 거리로 변한다. 유대교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아랍인들은 차량 운행을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3 메사 석비



고고학은 과거의 이야기를 역사로 바꾸어 놓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신비한 힘을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서학자들에게는 땅 속에서 나온 유물들이 가치를 매길 수 없으니 만큼 가슴벅찬 숨쉬는 생명체이며, 인류가 함께 소유해야만 하는 선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경제적인 가치로만 그것을 판단할 뿐입니다. 이 좋은 예가 디본(Dibon : 사해 동쪽 요르단의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은 전문 고고학자, 또는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활발하게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유물을 발굴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마추어 고고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이나 로마 카톨릭, 정교회 성직자들, 그리고 베두인들은 성경과 관련된 유물을 찾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지나치게 경쟁적이어서 문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1868년 클라인(Klein) 선교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메사의 석비 Mesha

Stele'는 바니 하미다(Bani Hamida) 족이라는 베두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땅을 지배했던 오트만 제국은 그 석비의 소유권을 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값비싸게 고고학 유물이 팔려나가던 시절, 베두인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빼앗기기 전에 한 덩이가 아니라, 여러 조각을 내다 팔아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모닥불을 피워 석비를 달군 다음 차가운 물을 붓고는 단단한 돌로 내려 찍어 석비를 조각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석비가 깨지기 전, 1869년 10월에 프랑스 동양 학자인 클레몽-개누(Charles Clermont-Ganneau)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 석비의 탁본을 떠 놓은 것입니다. 깨져버린 메사 석비가 예루살렘의 유물 시장에서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클레몽-개누는 당시 팔레스타인 탐사 기구(Palestine Explore Fund)와 유명 고고학자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1891년 파리의

르부르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였습니다. 모압어로 쓰여진 메사 석비는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압의 뿌리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사건과 함께 루트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창 19:37)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인 겁니다.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 그모스를 섬기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민 21:29)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정 체제를 만들었지만(민 21:10-20; 신 2:9-19) 그 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에서 발람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했던 발락이 바로 모압의 왕이었거든요.(민 22~24장) 이 모압에 발락 만큼이나 알려진 '메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주로 목축으로 경제생활을 이어갔는데, 매년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 곧 이 조공을 멈추어요.(왕하 3:5)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와 에돔 왕에게 도움을 구해 동맹을 맺고 모압 정벌을 시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쟁이 있기 전, 메사와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메사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기록을 보면, 성경이 말하듯, 오므리 왕조(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아달랴)가 모압을 다스렸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5행) 메사 석비에 의하면, 오므리 왕조로부터 40년간 지배 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의 연대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북왕국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들이 모압에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기록은 대단히 역사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죽은 뒤, 그 아들 때에 전쟁을 했노라고 서술하는데(왕하 3) 메사의 석비 역시 6행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전쟁 결과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메사의 석비에 당대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처음 이 석비가 발견되었을 때,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매우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역사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던 학자들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일부 문헌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형태의 종교라고 주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메사의 석비 17행과 18행에 딱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느보(Nebo)를 점령했습니다. 느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단이 있었던 듯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쟁 중에 신전에서 탈취한 물건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신을 상징하거나, 그 신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이긴 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아 승리를 자축하는 것입니다. 마치 11~13행에서 아타롯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화로(제단으로 추정)를 그리움에 있는 그모스 신전으로 가져간 것처럼 말이지요.

메사는 느보를 점령한 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과 그곳의 산당(또는 성소)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메사가 예배하던 그모스 신전에 두어 그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랑하면서, 석비에 새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는 적어도 기원전 9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이곳 저곳에서 등장하는 도시 이름들과 고유명사들이 석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약성경의 역사 기록의 진실성이 확증되는 계기가 되니, 이 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왕의 손에 만들어진 석비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성경이 믿음직스러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메사 석비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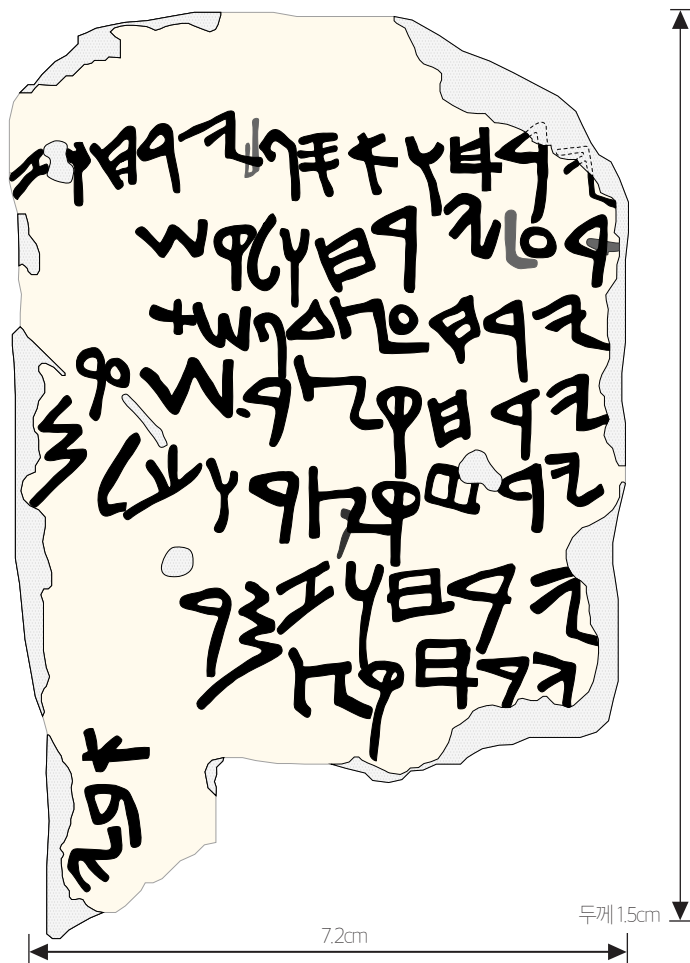
1행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이자 모압의 왕이며 디본 사람이다. 2행 [디본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으로 모압을 30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행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케리코 Qrhh 에 그모스를 위해 이 산당을 만들었다. 4행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든 왕들로부터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적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오므리라는 5행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오랜 날 동안 모압을 압제했다. 왜냐하면 그모스가 자기 땅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6행 그의 아들이 그를 이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 역시"나는 모압을 압제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날에 그의 말대로 했다. 7행 그러나 나는 그와 그의 집을 압제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다. 그렇다 영원히 폐허가 되었다. 오므리는 [메데바의 모든] 땅을 소유했다. 8행 메데바의 [모든 땅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의 날에 그곳에 살았고, 그의 아들은 그의 날의 반인 40년을 [그곳에서] 살았다.(생략) 20행 나는 200명의 모압 사람들을 데리고 (부대들) 나누어 아하시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21행 디본에 (아하시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나는 케리코 Qrhh를 건축하였다. 나무들로 성벽을 세우고, [성채의] 벽을 둘러쳤다. 22행 성채의 [벽을 둘러쳤다.] 문들을 만들고 방대를 세웠다. 나는 23행 왕궁을 건설하고 [도시] 안쪽에 샘의 물 저장고를 만들었다. 24행 도시 [안쪽에 샘의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었다.] 케리코의 성을 안에는 물 저장고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 각 사람들은 만들어라." 25행 "너희! [각 사람들은] 집에 물저장고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케리코의 물길을 두르게 하였다. 26행 이스라엘의 [포로들]. 나는 아로엘 Aroer 을 건축하고, 아르논 Arnon 에 군사 도로를 닦았다. 27행 나는 벳 바못 Beth Bamot 을 건축하였다. 왜냐하면 그 곳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베셀 Bezer 을 건축하였다. 왜냐하면 (그 곳이) 폐허(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28행 디본 (사람들)은 전쟁 명령을 대기하였다. 모든 디본 사람들이 내 수하에 있게 되었다. 나는 왕이다. 29행 나는 수백개의 마을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다. 나는 땅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는 나는 건축하고 있다. 30행 [나는] (벳 메데바) Beth Medeba 와 벳 디블라다임 Beth Diblaten 그리고 벳 바알 모온 Beth Baal Meon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데리고 왔다... 31행 그 땅의 양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우란 Hauran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32행 그모스가 내게 말하였다. "내려가라, 하우란 사람들과 싸우라." 나는 내려갔다. 33행 그모스는 나의 날에 회복 시켰다... 그곳으로 부터... 34행 그리고 나는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4 게젤(Gezer) 달력



1행 두 달은 거두어 들이는 달 두 달은
2행 씨 뿌리는 달 그두달은 뒤늦게 익은 것들(을 추수하는) 달
3행 한 달은 아마를 뽑는 달
4행 한 달은 보리를 추수하는 달
5행 한 달은 추수하고 (곡식농사를) 끝내는 달
6행 두 달은 포도를 따는 달
7행 한 달은 여름 과일(을 거두는) 달
세로 아비달

이 번역은 저자의 개인번역이며 몇몇 논쟁이 되는 단어들의 번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번역을 참조하라.

3행의 번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번역은 “추수하다”라고 번역하였으나, 나는 콜러 Aaron Koller 의 견해를 따라 גאט גאלימער נאך의 방언이라는 말에 동의해서 “뺏다”라고 번역하였다. 실제로 아마는 땅에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추수를 한다. Koller, Aaron. “Ancient Hebrew גאט and נאך in Gezer Calendar.”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72[2] (2013): 179-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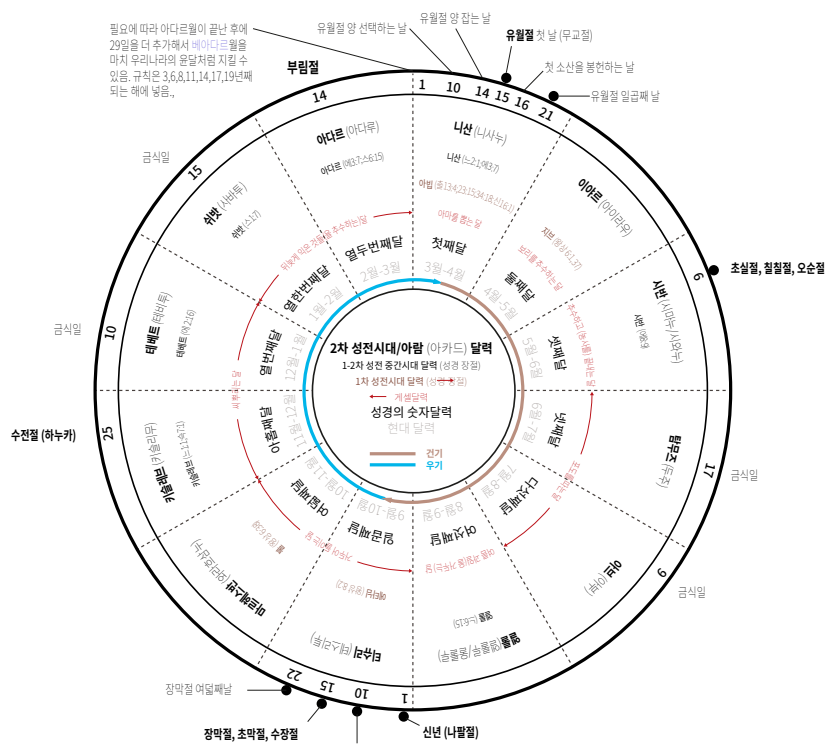
5행의 번역에 대해서는 몇가지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올브라이트는 “한 달은 추수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גלל로 읽었기 때문이다. 탈몬 S.Talmon 은 גלל을 גלל로 읽어서 “한 달은 두 몫을 추수하는 달”이라고 번역하였다. 혼제발 S.J. Ronzevalle은 גלל을 גלל(ג)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한달은 추수하고 (곡식 농사를) 끝내는 달”이라고 번역하였다. 나는 혼제발의 견해를 따랐다. Talmon, S. “The Gezer Calendar and the Seasonal Cycle of Ancient Cana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3[2] (1963): 177-187

절벽의 벼랑, 현무암에 잘 다듬어진 비석, 토기, 토판 등 어디에 기록이 되었던 고대 기록물의 기록자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썼습니다”라고 드러내 놓고 기록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글자를 판독할 수는 있지만, 그 글자를 기록한 사람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게젤(Gezer. 우리말 성경에는 ‘게셀’이라고 번역하였다.)이라는 곳에서 1908년에 발견된 넓적한 석회석 판 위에 새겨진 글은 저자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어서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야’(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비야가 누구인지, 그 직업은 무엇인지 똑 떨어지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아마 세금 징수원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석판에 기록된 내용은 일년 중 해당하는 달에 어떤 농업 활동을 하는가인데, 농업을 하던 사람들로 부터 세금징수를 위해서 아비야가 일종의 ‘구분 열람표’처럼 기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석판은 이스라엘 사람 아비야가 기록한 공식 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탈몬, Talmon) 아비야가 제사장 중의 하나가 아니었는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석판이 곡식 창고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일종의 ‘제사장 축복 기도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비르긴, Wirgin)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아비야의 직업은 서기관 학교의 학생입니다. 글씨체가 매우 투박하

고, 그 문단 구성 역시 세련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마 서기관 학교에서 ‘글씨 쓰기 연습을 하던 석판’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올브라이트 Albright) 아비야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기원

전 10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대략 기원전 950년에서 918년 사이) 이 시대는 솔로몬이 통치를 하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 초반인 다윗의 시대에 게젤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올라와서 이 게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키면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이 도시를 주었습니다(왕상 9:16). 그 후로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이주해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기도 하였고요. 아마 아비야도 그렇게 게젤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달력을 읽으면서, 마치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하는 농업 기술 전문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달력에서 오늘날 처럼 12개월의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참 흥미롭고, 성경에서 말하는 달에 따른 농사 이야기들과 딱 들어 맞기에 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3,000년 전이나 그 이후로 심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농업 환경 만큼은 변화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저에게 이 석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발견입니다.

첫번째는 다윗-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성서 학자와 고고학자 가운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왕들이었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시대에 게젤이라는 도시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주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게젤에서 기원전 10세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던 ‘아비야’라는 이름이 새겨진 석판이 발견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더불어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치세도 확증되는 놀라운 작은 석판이 게젤 달력입니다.

두번째로 당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가는 질문에 고전적인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대 서아시아 지방과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다 할 문자 문명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처럼 문자화된 기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후대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원전 10세기(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문자가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올브라이트의 말 대로라면, 이미 학교가 만들어져서 글을 쓰고 읽는 법을 가르쳤다는 말이 되니, 이것 또한 학문의 이론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견된 시기가 팔레스타인 땅이 오스만 제국의 시대였기에 진품은 현재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 되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가 눈으로 읽어 보고 싶습니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5 메르넵타 석비



람세스 2세(1279 – 1213 BCE)의 열세번째 아들인 메르넵타가 파라오가 되었다. (1213 – 1203 BCE) 람세스 2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큰 아들을 잃었던 바로 그 파라오다. 강력한 군주였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죽고, 메르넵타가 파라오가 된지 5년째 되던 해(1209 BCE)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온 해양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무력으로 침공했다. 이집트를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쳐들어왔던 이 전쟁이 이집트에게는 나라의 국운이 달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을 것이다. 이 전쟁은 메르넵타의 승리로 끝난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이기면, 왕들은 의례 자기의 승리 기록을 약간 과장하여 남겨 놓는 것이 고대 국가의 풍습이었다. 메르넵타도 이 승전 기록을 시와 이야기 형태로 각각 카르낙 신전에 기록해 놓았다. 이야기 형태로 기록된 승전 기록에 의하면, 여섯시간 동안 리비아-해양 민족 동맹군과 싸워서 9,000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하니, 전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알만 하다.

석비에는 리비아와 해양 민족들의 땅들로 진군한 파라오가 점령한 도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석비에 기록된 가나안 도시와 민족은 다음과 같다. (1)지중해변, 해양민족을 대표하는 도시 아스겔론(수 13:3), (2)지중해와 산지를 연결하는 지역(셰펠라)을 대표하는 게셀(삿 1:29), (3)갈릴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인 야노아(수 16:6), (4)유대 산지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1896년에 이 석비를 발견한 영국 고고학자 페트리(Flinders Petrie)는 너무나 흥분했다. 성경 이외에 이집트 문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 최초 고대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는 나라를 가리키는 유일한 이집트의 문헌이 바로 이 메르넵타의 석비다.

아버지의 때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르넵타에게 손톱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집트 국력에 비하면 그 힘은 미미하지만, 제국의 노예들이 탈출해서 만든 나라라는 것만으로도 이집트 파라오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지역에는 이미 예전부터 이집트와 불편하게 국경을 맞대고 전략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해양 민족들도 있었다. 이곳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오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툼이 있기도 했다. 이런 다툼이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한번 쯤 전쟁으로 이집트의 힘을 보여주어야만하는 상황이 메르넵타의 때였다. 파라오가 바뀌었으니, 아버지 람세스 2세처럼 자기도 강력한 군주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메르넵타는 이집트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서쪽의 리비아, 동쪽의 해양 민족과 유대 산지의 이스라엘을 거쳐 갈릴리까지 원정을 했다.

메르넵타가 남긴 석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석비 때문에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다. 메르넵타의 때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공동체가 유대 산지에서 주도적인 세력 또는 국가(12지파의 연합체제)가 있

었다는 것이다. 석비에 기록된 도시와 지역들은 그곳을 대표하는 이름들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삭-야곱의 시대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 이 세 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민족이었기보다는 그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주해온 가문, 또는 그 식솔이 꽤나 많았기에 좀 알려진 가문이었을 뿐이었다. 적어도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정치적인 체제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공동체가 이집트가 괄목할만한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때는 출애굽 이후,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 노예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였다. 요새이자 국고성이었던 람세스와 비돔을 건설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다면(출 1:11) 그 시기는 람세스 2세 때일 것이다. 그 때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마친 후, 유대 산지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었고,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넵타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으니, 메르넵타 석비에 등장하는 이름 ‘이스라엘’ 이야기는 성경 내용과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룬다.

과거의 학자들은, 심지어 현재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분열왕국 시대(유다 왕국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유대 산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 또는 국가적인 체제를 갖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몇몇 집안을 중심으로 뭉쳐진 촌락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주장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 솔로몬 시대까지의 역사 기록은 사실에 기초했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꿈과 희망이 담긴 과장이라고 한다. 메르넵타의 석비는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넵타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유대 산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 체제를 갖춘 공동체로 알려졌음이 확실해졌으니, 이 또한 이방인의 손으로 성경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사진설명

1 메르넵타 석비(Merneptah Stele)

메르넵타의 석비에 음각으로 기록된 이집트 상형문자 ‘이스라엘’
테헤누(Tjehenu: 리비아인 부족)는 정복당하였다. 하티(Khatti: 히타이트족)는 평화로왔다. 가나안은 고통 가운데 포로되었다. 아쉬켈론(아스겔론: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은 정복당하였고, 게셀(게셀: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은 사로잡혔다. 야노암(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 남지 않았다.

2 카르낙 신전

‘요새화된 도시’라는 뜻의 카르낙 신전은 이집트 중앙국 시대부터 건축되기 시작했다. 이 신전 건물의 대부분은 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이집트의 룩소르 외곽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메르넵타 석비는 현재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6 나팔 부는 곳



유대교의 예배에서 가장 긴 예배 순서(Prayer Service)를 가진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식적으로 긴 예배 순서를 가진 절기가 새해입니다. 대략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니,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남짓의 개신교의 예배에 비하면 참 길지요. 사람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 예배의 주를 이룹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요? 유대인들 역시 “샤나 토바”(שנה טובה 좋은 한해를 보내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떡국을 먹듯이, 유대교에서는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풍습

이 있습니다. 우리는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은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며 새롭게 맞이하는 해가 그처럼 달콤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세계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풍습은 조금씩 다르다손 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또 다른 색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타실리크(תשליל דנדר) 던져 버림)라는 것인데요. 이 기도 예식은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해에 지었던 과거의 죄를 모두 던져버리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새해 맞이와는 다른 유대교의 새해 맞이 전통은 ‘회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해 첫날부터 유대인들은 아흐레 동안 추바(תשובה)를 지킵니다. ‘추바’라는 말은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추바의 취지는 옛 습관을 버리지 않겠다는 웅고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최초 인류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새해를 맞이하면 “과거의 것

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며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과거의 내 모습을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선한 상태로 돌아가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또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요.

과거를 청산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흔히들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이해합니다만,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옳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범했던 죄를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이며 과거 청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흐레 동안 추바를 지키고 나면, 열흘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면, 유대교의 새해와 우리 나라의 새해는 같은 것 같지만, 또 전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의 새해(로쉬 하샤나 שנה טובה)가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현재 유대교에서 새해로 지키는 날을 ‘일곱째 달(티스레월 תשרי)의 첫날’이라고 부르고, 이 날에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레 23:23-25)

나팔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장막을 펴고 접으며 움직이거나 설 때 사용되는 신호였습니다.(민 10장) 전쟁에 나가거나 전장에서 사용되었지요.(수 6) 명절과 안식일을 시작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레 23)

민수기 8:1~12:16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대교에서는 베하알로테카(בהאלותקה)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기도 하고, 작게 불기도 하는데, 나팔을 길게, 또는 짧게 부는 방식입니다. 유대교

의 전통에서는 새해에는 나팔을 짧게 불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나팔 불기’이던 간에, 그리고 그 나팔이 전쟁을 나가는 나팔이든, 광야의 텐트를 걷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나팔이든, 아니면 명절이나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던 간에 모든 나팔은 ‘기쁨의 나팔’이라고 말합니다.(Rabbi Meir Simhah ha-Cohen of Dvinsk) 전쟁의 상황에서는 곧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진영이 움직일 때에는 조금 더 가난한 땅으로 가까이 가니 즐거울 수 밖에는.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말해야 무었하겠습니까.(사 58) 새해라면 더욱 더 그렇겠지요.

1968년에 벤자민 마자르(Benjamin Mazar)가 무너진 성전 벽의 남서쪽 모퉁이를 따라 1세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층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고학 발굴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닥이 되겠네요.

바닥에서 성전벽 모서리 저 위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의 공격으로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현무암 돌덩어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성전의 벽이었는데, 그 현무암 덩어리 중에 사람의 손으로 잘 다듬어진 돌 위에 정자로 잘 쓰여진 글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뒷쪽은 완전히 깨져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남아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글은 이렇습니다.

“... 나팔을 부는 곳”

아마 안식일이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명절, 특별히 나팔절(새해)에 이 곳에서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언덕 위, 그리고 그 언덕에서도 대략 60-80m 높이의 성전벽 모퉁이에서 부는 뿔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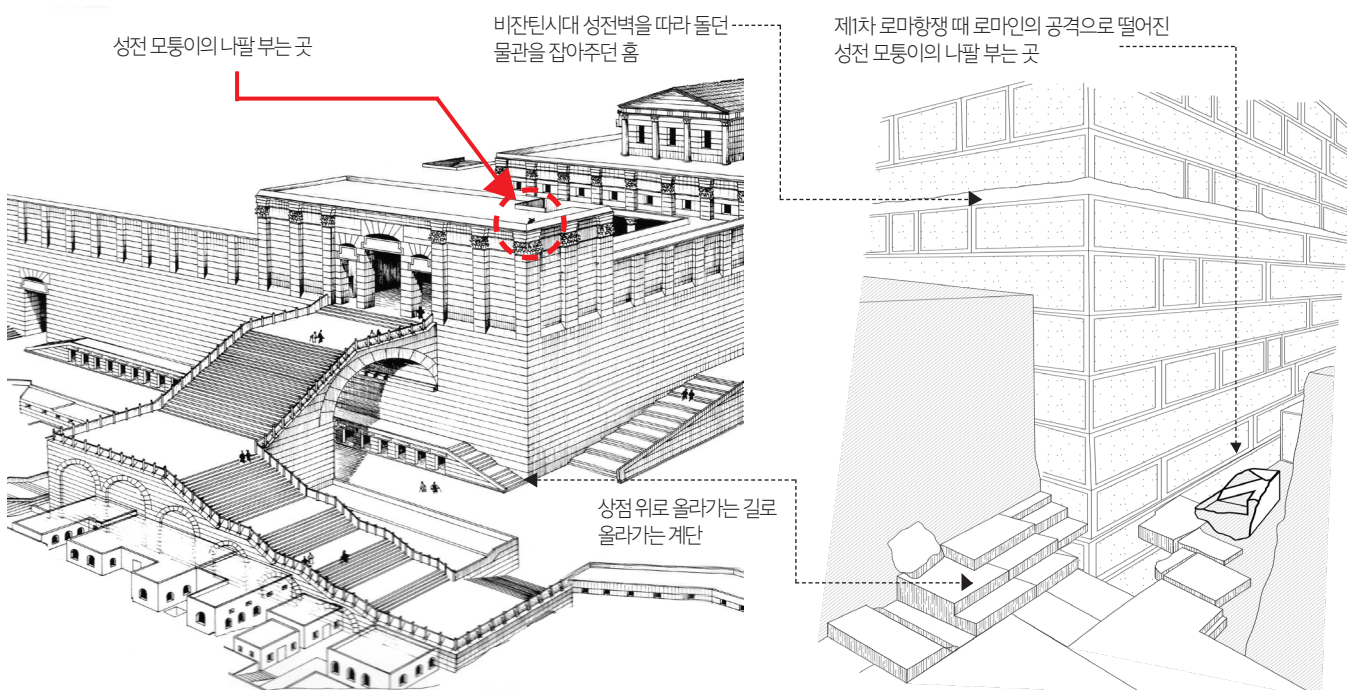
안식일이 되면, 그 나팔이 이렇게 외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 새해에는 나팔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달콤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라. 그리고 죄 된 옛 것들은 모두 던져 버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하라.”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참조한 사이트 : Bar-Ilan University's Parashat Hashavua, Parashat Behaalotekha (<https://www.biu.ac.il/JH/Parasha/eng/behailot/zol.html>)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7 케테프 힌놈



- 1 ה/ו ברך ה 네게 복을 주시고
- 2 [א] ליהו[ה] 여호와께
- 3 העזר ו 도우시는 (여호와)
- 4 הגער ב (악한 것을) 쫓아내시는 (여호와)
- 5 [רע] יברך 네게 복을 주시고
- 6 יהוה י 여호와께서
- 7 שמרך 너를 지키시고
- 8 יאר יה (여호와께서) 비추시고
- 9 [ו] ה פניו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 10 [אל] יך וי 너에게로 그리고
- 11 שם לך ש (여호와께서) 네게 두시리라
- 12 [ל] 평강을

1

‘복’은 누구나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을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입니다.

“24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민수기 6장이 이 구절을 안식일이나, 명절, 그리고 중요한 예식에서 빠뜨리지 않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바람과 더불어,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 “복을 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마치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리는 것(수주대토 守株待兔)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민수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억하며 입술에서 되뇌었을까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끌었던 제의와 제의에서 불렀던 노래와 기도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의 성막과 솔로몬이 건설한 성전에서 행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그리고 중반에 이르는 시대에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들에서 고고학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의 성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의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경의 제의와 유사한 메소포타미아의 제의들이 속속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제의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제의가 비

교 연구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유다의 멸망을 전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성경 이야기를 기초로, 둘 사이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사점이 발견될 때마다, 바벨론의 것을 위에 두고, 성경의 것은 바벨론 포로기(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영향을 받은 유다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차용하였다는 주장이 마치 정설처럼 학자들 사이에 유행을 했더랬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제의 율법들이 포로기이나 이르러 기록되었거나, 포로기 때에 경험한 바벨론의 제의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 고유의 것인양 빌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운색하였다는 투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근거한다면, 오경에 나오는 성막 제의는 성전 제의의 뿌리를 설명하기 위한 후대의 창조적인 기록이며, 역사적으로 실재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데에까지 이릅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사장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성전 시기에는 있지도 않았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제사장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또한 포로기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후대의 창작물이 된 셈입니다.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 정신에 근거한 매우 서구 제국주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설명입니다. 사실 당시 고고학자들 역시 점령군처럼 현재의 중동 땅에 들어가 발굴을 했으니, 이런 해석들의 뒤에는 발굴물을 해석하는 이의 정신 세계가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1975~76년에 걸쳐서 텔아비브 대학교의 고고학 발굴팀이 기원전 9~8세기에 잠시 사람들이 살았던 시나이 반도의 쿤틸렛 아즈루드(Kuntilet 'Ajrud)에서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떠올리게하는 문구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포로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의 축

복기도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써 읊어졌으며, 또 일반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1979년에 오트만 시대(1517~1917년 사이 현재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였던 제국)에 무기 창고로 사용하던 고대 무덤들 중의 하나에서 우연히 목걸이 장신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신구들의 용도를 추측하면서, 아마 부적처럼 그것을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든 장신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무덤은 대략 650BCE를 전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가로 27mm 세로 97mm의 얇은 은판이 원통형으로 돌돌 말려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펴 보니, 그 위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금속 제품의 특성상 일부가 부식이 되어서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남아 있는 글자들로 그 내용을 재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 중의 하나를 뿔 때, 성서학과 고고학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26절에 적혀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이었던거요.

이 발견으로 오경에 나와 있는 성전 제의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과 체제들이 기원전 6세기 초반, 또는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창조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학자들이 주장한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였던 기원전 7세기부터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문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니까요.

몇몇 글자들에 대해서는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독법을 제시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은목걸이에 새겨진 글이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이라는 데에는 아직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왜 이리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에서 고고학 유물들을 볼 때마다, 땅속 어딘가 고대의 흙 속에 숨어 있을 하나님의 흔적들이 세상의 빛을 볼 그 날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사진설명

1 케테프 힌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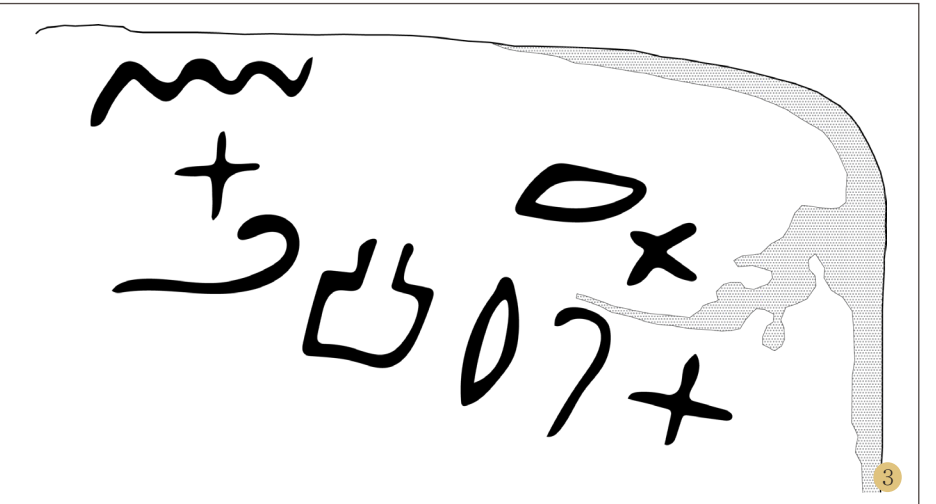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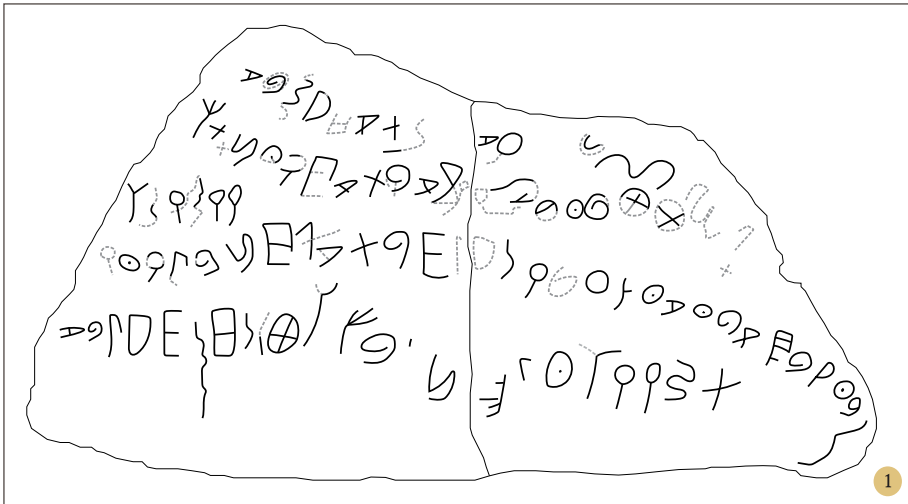
2 케테프 힌놈 목걸이 : 발굴된 순서에 따라서 좌측을 Ketef Hinnom I (KH 1), 우측을 Ketef Hinnom II (KH 2)라고 부르며,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적혀 있는 목걸이는 우측의 것 (KH 2)이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8 이즈벳 자르타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훈민정음이 처음 기록된 책을 보면,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지요. 마치 한자로 쓴 책들처럼 말입니다.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세로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왔지요. 그럼, 한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세로 쓰기가 가로 쓰기로 바뀌면서부터 왼쪽부터 쓰기가 시작되었다고들 추측합니다.

1895년에 출판된 국한회어(國韓會語)라는 책이 있어요. 국문을 한자나 한문으로 풀이한 말모음집인데요. 이 책이 가로 쓰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진 것을 보면, 적어도 1895년에는 가로쓰기,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가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대한제국 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외래 문자와 서양의 글자들이 속속 소개되었지요. 아시다시피 서구의 알파벳은 가로쓰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이처럼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한글도 가로쓰기가 보편화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없애고 모든 글을 가로 쓰기로 정했다고 하네요.

그럼, 조금 고대로 가볼까요? 이집트어는 글쓰기의 방향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던 별 상관 없이요. 예를 들자면, 이집트 상형문자(Hieroglyphs)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이든 읽을 수 있었습니

다. 상형 문자에서 새나 사람이 나올 때, 새의 머리나 사람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히브리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살던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 상형문자를 읽는 방향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마치 이집트 사람들 마냥 쓰는 방향이 약속처럼 정해진 것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시내산의 남서쪽에 세라빏 엘 카뎀(Serabit el-Khadem)이라는 곳에는 구리 광산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구리 광산에는 가나안 출신의 노동자들이 주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 광산의 노동자들 가운데에는 아마 성경의 히브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광산에는 이집트의 여신 하토르(Hathor)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글자가 쓰여진 돌조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조각 위에 새겨진 글자의 모양이 참 독특했었습니다. 페니키아 글자를 기본으로해서 이집트의 상형문자의 영향을 받은 그들만의 특별한 글자 형태였거든요. 이집트 문화와 페니키아 문화가 만나 새롭게 고안된 이 글자의 형태를 ‘시나이식 표기의 원형’ ‘Proto-Sinaitic letters’

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고왕국의 때부터 신왕국에 이르기까지(기원전 19세기-15세기)의 긴 시간동안 그곳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광산들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했던 그곳에서 발굴된 돌조각 중의 하나를 알란 가디너(Alan Gardiner)라는 학자가 해독했는데, 그 위에는 ‘여주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의 여신인 ‘하토르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구는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글처럼 말이지요. 즉 가나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로 진출하면서 가나안 문자의 전통 위에 이집트의 문자의 형태가 채색된 시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를 했었다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기원전 12세기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즈벳 자르타(Izbet Zartah) 토기는 성경의 에벤에셀(삼상 4:1)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쉐아(Shea)라는 학자는 이 다섯줄의 글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기럃여아림으로 옮겨가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확하게 해독하기 힘들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자도 조악해서 아마 글씨 연습을 하던 일종의 공책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간혹 지워져 있는 글자들 사이로 확실한 글자들이 보이고, 그 글자들의 표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쓰기 되어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결국 시나이 반도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뿐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를 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의 히브리어 쓰기 방법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확정되었을까요? 11세기 후반 또는 10세기 초반에 쓰여진 샤아라임(Khirbet Qeiyafa)의 글까지도 보면, 아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10세기 중반,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가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페니키아와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 히람이 도와주는 이야기 말입니다(왕상5:1-12). 이 두로가 페니키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페니키아와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면서, 국제적인 상업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마치 우리 한글이 중국식 표기 방식을 버리고, 서구의 방식을 따르듯, 페니키아의 표준을 따랐던 것이지요.

결국 고대 히브리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글쓰기의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원전 10세기 중반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가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Butin, Romain F. “The Protosinaitic Inscription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5[2] (1932): 130-203.

Shea, William H. “The ‘Izbet Sartah Ostrako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28[1] (1990): 59-86.

Lam, Joseph.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Alphabet.” Pages 189-195 in Visible Language: Inventions in Writing in the Ancient Middle East and Beyond. Edited by Christopher Woo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0.

사진설명

- 1 이즈벳 자르타(Izbet Zartah) 토기는 성경의 에벤에셀(삼상 4:1)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되었다. 쉐아(Shea)는 이 다섯줄의 글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기럃여아림으로 옮겨가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확하게 해독하기 힘들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 2 두루마리 : 성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를 하며, 길게 쓴 두루마리는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한다.
- 3 Proto-Sinaitic Letter로 쓰여진 세라빏 엘 카뎀의 글귀는 “여주인에게”라고 쓰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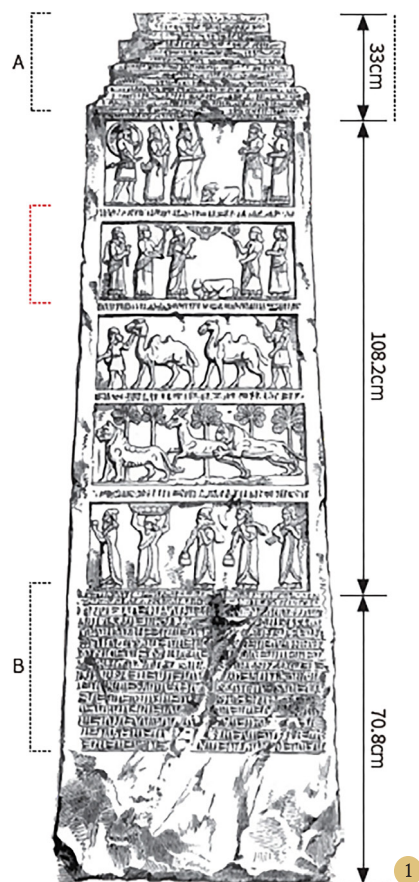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9 검은 오벨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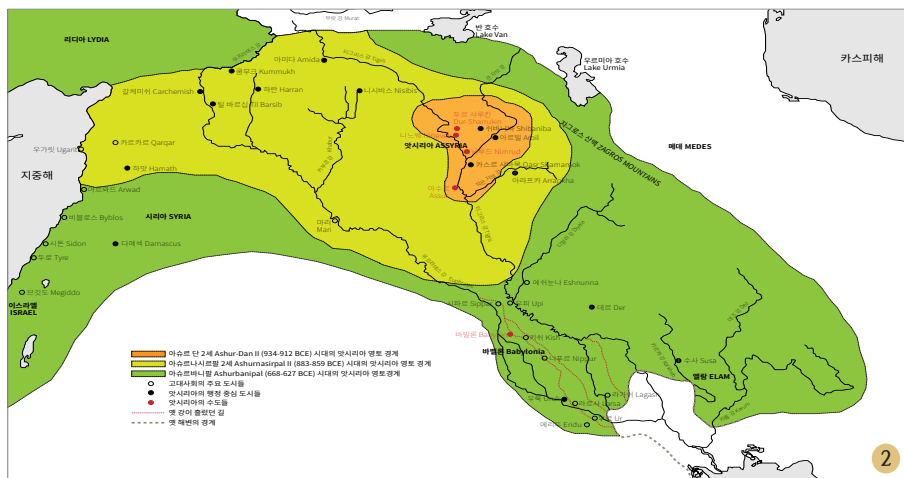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대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제국들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유다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역사 이야기들(예를 들자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소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예가 카르카르(The Battle of Qarqar) 전투입니다.

앗시리아(우리말 성경, 앗수르)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규모로 만난 첫번째 전쟁은 아합 시대였어요. 기원전 853년에 살만에셀(Shalmaneser III: 858-824 BCE)의 군대가 가나안과 아람 지역의 나라들이 결성한 연합군과 카르카르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12나라의 연합군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1] 하맛(Hamath), [2] 아람 다메섹(Aram-Damascus), [3] 암몬(Ammon), [4] 아르와

드(Arwad), [5] 쿠(Que), [6] 이르카나타(Irqnata), [7] 쉬아누(Shianu), [8] 우산나타(Usannata), [9] 마수라(Masura), [10] 아랍(Arab), [11] 이집트(Egypt-이집트의 참전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연합군의 지휘관이 아람-다메섹의 하다드에셀(Hadadezer)인데요. 아람이라고 하면,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합과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아합과 조약을 맺고 돌아갔던 나라입니다.(왕상 20장) 그런데 그로부터 몇년 되지 않아서 열두 개 나라가 함께하는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합은 2,000대의 병거와 10,000명의 군인들을 참전시켰습니다. 이 전쟁을 기록한 쿠르크 석비(Kurkh stela)가 없었다면, 아마 역사에 이 전쟁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또 성경에 등장하고 서로 다투는 아람의 벤하다드(우리말 성경, 벤하닷)와 아합이 서로 다투었다가, 성경대로 전쟁 후에 서로 조약을 맺고 친선관계를 맺은 후, 몇년 후에는 곧 연합군으로 함께 앗시리아와 견주어 싸웠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 버릴 뻔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고학의 발견으로 알려진 살만에셀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의 예후 역시 여전히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으로 앗시리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서로 마주하고 있던 때, 요람이 전쟁 중 부상을 입었나 봅니다. 잠시 전열에서 빠져 나와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엘리사가 제자 중의 하나를 보내 예후에게 이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예후를 따르게 되었어요.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인 후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28년간 다스렸습니다.(842-815 BCE)

당시는 살만에셀이 아버지인 아슈르나시르팔(Ashurnasirpal II)이 그어놓은 국경을 넘어 동서남북 중횡무진 군사를 이끌고 영토를 넓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만나는 것은 예측된 결



예후의 사절단. 검은 오벨리스크 첫번째 변의 두번째 돌에 새겨진 그림과 글

3

과였지요. 이 영토 확장 전쟁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아합과 11개의 동맹 국가들이 연합하여 앗시리아의 팽창을 막아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쿠르크 석비가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력한 위력을 과시한 앗시리아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비록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된 예후 역시 살만에셀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만에셀은 비록 예후가 아합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가의 후예로 예후를 인정하였고, 그로부터 공물을 받아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물이 살만에셀의 검은 오벨리스크(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검은색 현무암으로 만들어 진 사각형의 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25년에 당시 앗시리아의 수도인 님루드(Nimrud)에 세워졌는데요. 님루드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갈라(Calah)라고 하는 곳으로 함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창 10:11) 사각 기둥의 꼭대기 부분은 마치 지구랏(Ziggurat)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야드(Austen Henry Layard)가 1846년에 발굴한 것입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네 면에는 다섯 줄로 그림과 함께 조공을 바치러온 나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줄이 예후가 보낸 공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살만에셀 3세가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을 새겨놓은 그림을 보면, 살만에셀의 뒤로 한 시종이 햇빛 가리개를 받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뒤에 있는 또 다른 시종은 마치 살만에셀에게 부채질을 하듯 하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후에게 조공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만에셀을 보고 있어요. 맨 양쪽의 사람들은 살만에셀을 호위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옆 면에는 두명의 앗시리아 관리가 앞에 서있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네 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으로 넘어가면서 파노

라마처럼 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파노라마로 보면, 호위병의 뒤로 세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에셀에게 바칠 공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옆면으로 돌면 그 면에는 조공을 바치는 다섯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있는데요. 손에는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와 막대기, 잔과 왕의 홀과 막대기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면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섯 명이 조공을 메고 이며 오는데요. 어깨에는 큰 그릇들과 손에는 손잡이가 있는 그릇, 그리고 머리에는 무언가를 이고 있습니다. 살만에셀은 오벨리스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은, 금, 금사발, 금대접, 금잔, 금주전자, 주석, 왕의 손에 들린 홀과 막대기” 독립 국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합 시대 이후로 앗시리아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만에셀의 검은 오벨리스크(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가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조공도 큰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722BCE)



4

사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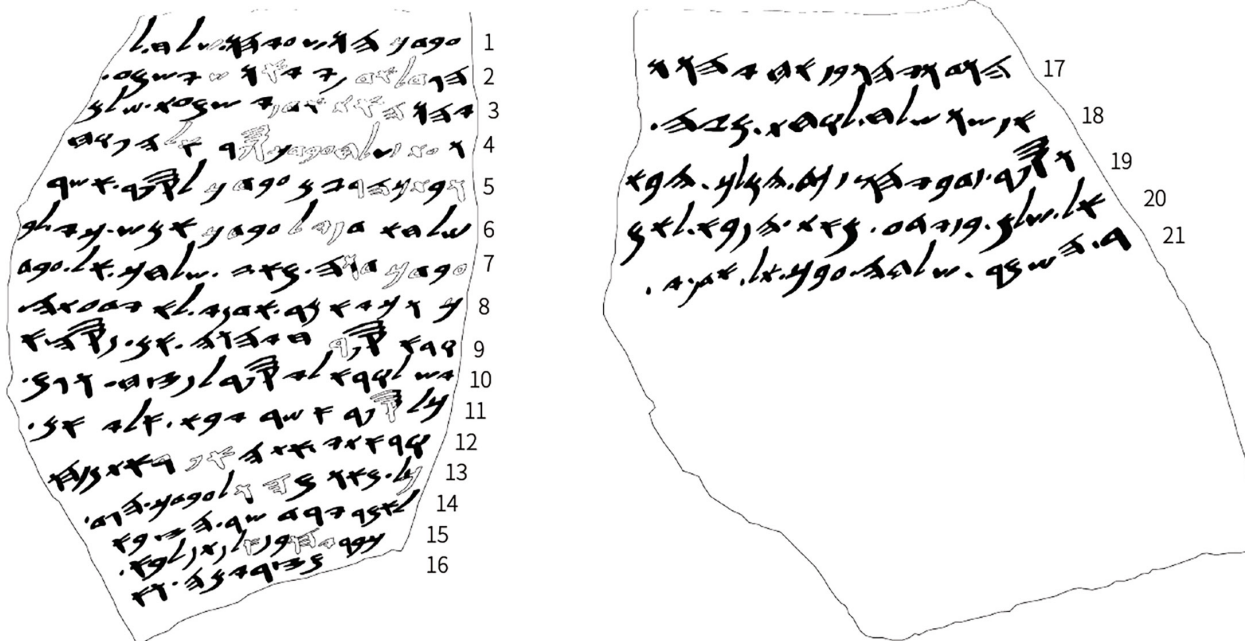
- 1 쿠르크 석비: 아슈르나시르팔 2세와 그의 아들 살만에셀 3세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전쟁 역사를 기록한 석비이다. 1861년 영국의 고고학자 타일라가 터키 동부 비스밀 지역의 쿠르크 마을에서 발굴했다.
- 2 앗시리아 제국의 영토 변화: 아슈르 나시르팔 2세가 살만에셀 3세의 아버지다.
- 3 예후의 사절단: 검은 오벨리스크 첫 번째 변의 두 번째 돌에 새겨진 그림과 글.
- 4 아벨 베틀 마야가 Abel Beth Maacha에서 2017년에 발굴한 두상: 아합 또는 예후로 추정.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0 라기스 3번 토기



1935년에서 1938년 사이에 라기스로 들어가는 성문 입구의 망대에서 깨진 토기에 쓰여진 편지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시기(605-587BCE)에 긴급하게 주고 받던 편지들이었어요.(렘 34:6-7) 토기 위에 쓴 스물한 개의 편지들이 발굴되었는데요, 각각의 편지들은 당시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기스 4번 토기 조각(Ostracon 4)에는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싸우고 있는 다른 요새와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었으나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며 다급히 전장의 상황을 편지에 남기고 있어요. 아마도 전쟁 중에 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을 갔거나, 이미 그 요새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점령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같은 토기 조각의 편지글에는 적군의 상황을 재빨리 전달하는 봉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기스와 대략 17km 떨어진 곳에는 아세가(렘 34:7) 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전장터 부근인데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적들의 상황을 아세가에서 라기스로 봉화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라기스에서 아세가의 봉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지휘관이 편지를 쓰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모습이 눈에 마치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이 전쟁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였습니다. 당시의 전쟁 이야기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글들과 함께 이 편지들을 읽으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학자들은 라기스에서 발굴된 이 편지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 즈음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에는 단지 느부갓네살의 군대와와 물리적인 충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유다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언자와 예언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서로 다투었고(렘 27-28), 왕과 예언자도 서로 다투었습니다.(렘 36)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야입니다.(렘 26:20-23)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유다를 냉철하게 비판했던 모양이에요.

여호야김 왕(609-598년)은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과 달리,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 우리야를 곱게 보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우리야를 예언자로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적이라고 간주하고, 우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야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우리야가 얼마나 유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예언자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도망간 우리야를 꼭 잡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를 잡아오게 하는데요, 여호야김이 보낸 사람의 우두머리가 악불의 아들 엘라단이었습니다. 기어코 쫓아가서는 우리야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앞에 데려가서는 칼로 죽였어요.

이 끔찍한 사건을 유추할만한 성경 밖의 이야기가 라기스의 편지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Ostracon III)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 참조]

[앞면]

Line 1 당신의 종 호샤야후(호세아)가 [1] 보

냅니다. Line 2 [1 나의 주, 야우쉬(요아스)에게], (왕이름 요아스가 아님) Line 3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평화의 소식을 [2] 들려주시기를 빕니다. Line 4 [2 좋은 소식을,] 이제 [3] 열어 주소서(들어주소서) Line 5 [3 당신께 바라기는] 당신의 종(호샤야후)의 귀에, Line 6 당신이 어제 저녁에 당신의 신하(편지를 가져온 사람)를 통해서 당신의 종(호세아)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Line 7 당신의 신하를 통해서 보내온 편지 때문에 당신의 종(호세아)의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Line 8 왜냐하면, 당신께서 제게, “너는 글자도 읽지 Line 9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Line 10 [4] 제게 읽어주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Line 11 [4 (당신이) 제게 보낸 모든 편지를 (저 대신)], Line 12 저는 편지를 읽었고, 뿐만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Line 13 자세하게 읽었습니다.(편지를 대충 읽지 않고 세심한 곳까지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5] 전달되었습니다. Line 14 [5 이 말이,] “군대 지휘관 Line 15 엘나탄의 아들 고니아가 [6] 내려갔다. Line 16 [6 이집트로]

[뒷면] Line 17 아히야후(아히야)의 아들 호다야후(호다야)와 Line 18 그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고니아)가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오라고 보냈다.” Line 19 나의 주(요아스)의 신하인 토비야후(도비야)가 [7] 왔습니다. Line 20 [7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아다의 아들 살룸(살룸)에게, (예언자가) 말하기를 Line 21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종 이 나의 주인께 보냅니다.

악불의 아들 엘라단(엘나탄)이 여호야김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와 함께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아마 그 안에 엘나탄

의 아들 고니아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라기스에서 발견된 이 편지가 그 당시를 반영한 것이라면, 이 편지 이전에 아마도 여호야김이 그의 군대 지휘관을 통해서 (아마도 요아스?) 라기스의 호샤야후에게 엘나탄과 그의 아들 고니아, 그리고 몇몇의 군인들이 우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니, 그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라기스에서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호샤야후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편지를 보낸 지휘관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지휘관 야우쉬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겠지요.(“너는 글자도 모르니?” Line 8-9)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이 바로 이 토기 조각에 기록된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편지의 말미에는 토비야후가 전한 예언자의 말,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첨언한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서 역할도 함께하지 않았나 싶어요.

읽기에 따라서는 라기스에 있는 지휘관이 야우쉬이고, 다른 지역의 하급 지휘관인 호샤야후가 보낸 편지로 이 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만 있을 뿐, 정확하게 이 편지의 문맥만을 가지고 확정을 내릴 수 없기에, 단정지어서 이 토기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6장의 그 사건을 두고 오간 편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예레미야서의 사건과 이 편지의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글을 읽으며, 왕의 말과 예언자의 말 사이에서 고민하던 전쟁 지휘관들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 듯하여 마음이 가뻔지만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를 한 번 더 생각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 토기를 그리고 그 해석을 참고한 책들과 이 글을 쓰는데 바탕이 된 박사 학위 논문

A.Zammit, “The Lachish Letters: A Reappraisal of the Ostraca Discovered in 1935 and 1938 at Tell-Duweir”, unpublished D.Phi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16.

사진설명

1 라기스 3번 토기조각(Lachish Ostracon) : 이 번역은 A.Zammit, “The Lachish Letters : A Reappraisal of the Ostraca Discovered in 1935 and 1938 at Tell-Duweir”, unpublished D.Phi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16), 114-32를 참조했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1 히스기야 이사야의 봉인



유다왕 히스기야의 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입니다. 남북 왕국 모두가 앗수르로부터 큰 위협을 받던 때가 히스기야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대략 727BCE입니다(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왕위에 오른 때부터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신하 국가로서 공물을 보냈습니다. 712년에 잠시 앗수르에 반대하는 편에 서기도 했었지만, 같은 해 사르곤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징벌적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착실하게 앗수르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국제 정치의 눈으로 보자면,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납작 엎드리면서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앗수르에 기댄 형국이지만, 이 때 벌여놓은 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때에 유다가 무너진 북왕국 사람들을 받아들여면서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남북왕국의 정치 중심지가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북왕국의 사람 모두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건조하게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 해드렸지만, 히스기야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와 국내 정치의 복잡한 셈법,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신앙적인 갈등들은 현대 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도 풀어나가기 힘든 숙제들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때에 히스기야가 의지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주님께 여쭙기 위해서 예

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당면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부분에서, 그리고 성경 이사야의 곳곳에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곤란에 빠져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히스기야에게 그 정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인지를 전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왕하 19-20; 사 37)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은 여럿이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외침’입니다. 길거리에서의 외침, 예언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득불 왕궁에 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지요. 또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글로 남겼을 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보낼 때에는 편지의 내용을 누군가가 미리 보거나, 다른 편지로 바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봉인을 합니다. 전달된 편지들은 왕궁의 서고에 보관되거나, 때로는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잘 보관한다고는 하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봉

인해 놓은 인장의 봉인은 진흙이기 때문에 말라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서 발굴을 하다보면, 이 인장들이 종종 발굴되는데, 아마 거기에는 예전에 분명히 두루마리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두개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살던 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오벨산에 만든 자기의 궁전입니다. 솔로몬의 궁은 그 이후로 유다의 왕들의 궁전이 되었지요. 유다 왕들의 궁전이라고 추정되는 오벨산의 곳곳은 이미 고고학자들이 참 많은 발굴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9년에 에일랏 마잘(Eilat Mazar)의 발굴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잘이 발굴한 오벨산의 한 지역에서 대략 30개의 인장의 봉인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 왕의 인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인장 모양은 앗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친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인장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을 보면,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오지요. 그리고서는 삼일 만에 낫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하늘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왕하 20) 히스기야의 인장을 보면, 태양이신 하나님(시 84:11)을 방패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고, 하나님의 깃(시 91:4; 겔 16:8; 말 4:2)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과 그 예언 후에 낫게 되었을 때, 낫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겼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인장이 찍힌 봉인은 왕궁의 부속 건물인 작은 망대 바로 옆의 발굴 구역에서 발굴되었는데, 같은 구역 안에서 또 다른 봉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발굴된 봉인에는 “예언자 이사야의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봉인의 경우는 “아하스의 아들 유다 왕 히스기야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

가 보아도 구약 성경 열왕기하와 이사야에 나오는 히스기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의 것’이라고 쓰여진 인장의 경우,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 이외에 동명이인의 예언자 이사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히스기야 시대의 예언자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언자 이사야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학자들은 단정짓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히스기야의 봉인이 발견된 그곳에서 발견된 예언자 이사야의 봉인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가 아닐까요? 마잘은 “매우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또는 이사야의 서기관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묶은 끈 위에 진흙을 올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인장을 날인해서 봉인해요. 아직 그 봉인이 다 마르지 않은 때, 이사야의 손이 닿은 곳에는 이사야의 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고, 그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는 편지들과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는 왕실의 부속 건물에 보관합니다. 머리 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유다가 멸망한 후, 이 공문서와 편지들은 땅 속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2,700여 년이 지난 2009년에 햇빛을 보게된 것입니다.

❖ 참고한 아티클

Mazar, Eilat. “Is this the Prophet Isaiah’s Signature?” Biblical Archaeology Review 44[2] (2018): 64–73.

사진설명

- 1 이사야의 봉인
- 2 히스기야 왕과 “예언자 이사야” 인장이 발견된 고고학 발굴 지역 : 오벨 지역(성경, 오벨산) 왕궁 부속 건물 이 작은 망대와 붙어 있는 발굴 구역에서 히스기야 왕의 봉인과 예언자 이사야의 봉인이 발견되었다. 이 구역은 솔로몬의 때에 확장된 오벨산 지역의 왕궁 터이다. 이곳에서 30개의 봉인들이 발견되었는데,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봉인이 발견된 거리가 불과 3m 밖에 되지 않는다.
- 3 히스기야 왕의 봉인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2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	שין	레쉬	코프	짜디	페	아인	싸메흐	눈	멤	라메드	카프	요드	테트	헤트	자인	바브	헤	달렛	김멜	베트	알렐	현대 히브리어 인쇄체
ת	ש	ר	ק	צ	פ	ע	ס	נ	מ	ל	כ	י	ט	ח	ז	ב	א	ד	ג	ב	א	
+	∞	ר	8		⌋	⊖	⌒	⌒	⌒	⌒	⌒	⌒	⌒	⌒	⌒	⌒	⌒	⌒	⌒	⌒	⌒	Proto-Sinaitic 1,500 BCE
+	Σ	∧	ρ	⌒	⊖	⌒	⌒	⌒	⌒	⌒	⌒	⌒	⌒	⌒	⌒	⌒	⌒	⌒	⌒	⌒	⌒	Proto-Sinaitic 기원전 13-12세기
+	~	9			⌒	⊖	⌒	⌒	⌒	⌒	⌒	⌒	⌒	⌒	⌒	⌒	⌒	⌒	⌒	⌒	⌒	페니키아 아히람의 석판 1,000 BCE
+	~	9	ρ	⌒	⌒	⊖	⌒	⌒	⌒	⌒	⌒	⌒	⌒	⌒	⌒	⌒	⌒	⌒	⌒	⌒	⌒	게젤 달력 기원전 10세기
×	~	9	ρ	⌒	⌒	⊖	⌒	⌒	⌒	⌒	⌒	⌒	⌒	⌒	⌒	⌒	⌒	⌒	⌒	⌒	⌒	메사의 석비 기원전 9세기
+	~	9	ρ	⌒	⌒	⊖	⌒	⌒	⌒	⌒	⌒	⌒	⌒	⌒	⌒	⌒	⌒	⌒	⌒	⌒	⌒	텔단 석비 기원전 9세기
×	~	9	ρ	⌒	⌒	⊖	⌒	⌒	⌒	⌒	⌒	⌒	⌒	⌒	⌒	⌒	⌒	⌒	⌒	⌒	⌒	실로암 비문 기원전 8세기
×	~	9	ρ	⌒	⌒	⊖	⌒	⌒	⌒	⌒	⌒	⌒	⌒	⌒	⌒	⌒	⌒	⌒	⌒	⌒	⌒	히브리어 인장들 기원전 7세기
×	~	9	ρ	⌒	⌒	⊖	⌒	⌒	⌒	⌒	⌒	⌒	⌒	⌒	⌒	⌒	⌒	⌒	⌒	⌒	⌒	라기스 토판 기원전 6세기
+	~	9	ρ	⌒	⌒	⊖	⌒	⌒	⌒	⌒	⌒	⌒	⌒	⌒	⌒	⌒	⌒	⌒	⌒	⌒	⌒	제국 아람어, 엘레판틴 파피루스-기원전 5세기 후반
×	~	9	ρ	⌒	⌒	⊖	⌒	⌒	⌒	⌒	⌒	⌒	⌒	⌒	⌒	⌒	⌒	⌒	⌒	⌒	⌒	Paleo Hebrew Qumran-레위기 파피루스 기원전 2세기
~	~	9	ρ	⌒	⌒	⊖	⌒	⌒	⌒	⌒	⌒	⌒	⌒	⌒	⌒	⌒	⌒	⌒	⌒	⌒	⌒	사마리아 기원후 12세기
ת	ש	ר	ק	צ	פ	ע	ס	נ	מ	ל	כ	י	ט	ח	ז	ב	א	ד	ג	ב	א	4Q418 기원전 2세기

글의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히브리어 알파벳과 고대 문자들의 모양을 미리 알려드리고, 함께 옛 글자들을 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이 글자들이 고대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소개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보면, 정말 운 좋게 글자가 쓰여있는 석비, 토기, 토판, 양피지나 파피루스들을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집터, 형상, 길, 무기 등의 유물도 유물이라니와 고고학자들을 가장 흥분시키는 유물은 뭐니 뭐니해도 글자가 쓰여있는 유물입니다. 글자가 주는 정보는 어마어마 하거든요. 히브리어가 속한 말의 무리들을 ‘셈어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셈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지만, 조금 유식한 척 이야기를 하면 지중해 동쪽 지역과 현재의 중동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말들 가운데에서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말들을 묶어서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이름이 ‘셈어족’입니다.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히브리어의 모체가 되는 말을 연구해 보니, 아람어와 유사성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어, 페니키아 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 글자(알파벳)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었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에 토기, 석비, 파피루스 등에 기록된 글자들을 열정적으로 연구한 끝에 히브리어와 히브리어의 친척이 되는 말들(예를 들자면, 가나안어, 모압어, 페니키아어, 암몬어, 아람어 등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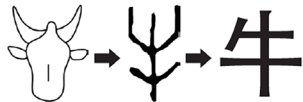
이런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가 그냥 연구실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기록과 가나안과 가나안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의 기록이 발굴되고, 연구가 거듭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매우 믿을 만하

다는 것을 글자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글자의 연구가 기독교 신앙을 단단하게 다지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과는 달리 한 글자 한 글자는 사물의 어떤 모양을 본 따서 만들어졌어요.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어머니가 되는 글자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핏 보아도 소의 머리, 물고기, 사람의 머리, 사람의 눈 등이 눈에 띄어 줍니다. 그러나 한자(漢字)처럼 글자 하나가 한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에서 ‘소’를 가리키는 말 ‘牛’자는 소의 머리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글자이고, 이 글자 자체가 ‘소’라는 의미를 가지지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소를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가 있습니다. ‘알렐’ α이라는 글자인데요.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소의 머리를 그리다가 차츰 기호화 된 것이 현재의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알렐이라는 글자 자체가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소’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알렐, 라메드, 페’ αλפ़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글자 하나는 그냥 소리의 가치만 있는 것이지요. 요즈음 종종 히브리어 단어를 글자 하나 하나가 의미가 있다며 이상하게 글자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림, 히브리어 글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베트’ ב라는 단어는 원래 텐트를 쳤을 때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땅이지요.

히브리어로 ‘바이트’ בַּיִת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려 1,744번이나 ‘바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김멜’ ג은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어요. 한 부류의 학자들은 전쟁 무기용 ‘창(槍)’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목이 긴 ‘낙타’를 형상화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 ‘김멜’과 발음도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인 ‘가말’ גָּמַל 이 낙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성경에 51번 나옴) 문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글자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글자와 말들을 거꾸로 추적해 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문법인지라, 문법과 글자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일지라도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 쉽지는 않아요. ‘달렛’ ד은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물고기를 형상화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문(門)’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문’이라는 말을 ‘델렛’ דֶּלֶט이라고 하거든요. 문을 뜻하는 ‘델렛’이라는 말도 성경에 77번이나 나올 정도로 일반적인 단어예요. ‘헤’ ה는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마치 누군가를 멀리서 ‘헤이(Hey) 하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바브’ ב는 전쟁 무기로 사용된 ‘곤봉’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못’이나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땅에 줄을 고정해서 박아 놓는 ‘말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어 글자 ‘바브’와 발음도 똑같고, 그 글자를 두 번 연속으로 쓴 형태인 성서 히브리어 단어인 ‘바브’ בַּב라는 말이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만 13번 나와요. 성막



발음: 우, 뜻: 소



발음: 소리값없는 ‘ㅇ’, 뜻: 없음

을 세우면서 기둥이나 성막 자체를 고정하는데 필요한 ‘갈고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트’ ה는 히브리어 ‘헤’ ה와 비슷하게 생겨서 헛갈리지만, 그림으로 그려진 문자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트’는 ‘담장’을 뜻한다고 봅니다. ‘테트’ ט는 ‘바구니’를 뜻한다고 말하는 설과 ‘물레’를 뜻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요드’ י, 는 사람의 ‘팔’을 그린 것이고요. ‘카프’ כ는 ‘손바닥’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라메드’ ל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소모는 막대기 ‘말마드’(히브리어 מ + 라메드의 합성어)를 가지고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삿 3:31). ‘멤’ מ은 ‘물결’의 모양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물을 ‘마임’ מַיִם이라고 해요. ‘눈’ עין은 ‘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아인’ א인 사람의 ‘눈’을 형상화했습니다. 구약성경에 886번이나 나오는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인’ עין입니다. ‘페’ פ는 사람의 ‘입술’입니다. 히브리어로 ‘입’ 또는 ‘혀’를 뜻하는 말이 ‘페’ פ입니다. ‘짜디’ צ는 ‘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레쉬’ ר는 사람의 ‘머리’를 그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사람의 머리를 ‘로쉬’ רֹאשׁ라고 합니다. ‘שין’ ש은 사람의 ‘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치아를 ‘쉐’ 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타우’ ת는 고대에 사람들이 무언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표식’입니다. 우리도 요즈음 X표, 또는 V표를 하면서 점점 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X표를 하여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았는데, 그 형상이 ‘타우’ ת가 된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어 글자 하나 하나의 의미를 모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까지도 몇몇 글자들, 예를 들어서 ‘자인’ ז이나 ‘사메흐’ ס, ‘코프’ פ 같은 글자는 도대체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충 학자들의 상상력으로 그 글자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참조할 만한 대조군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된들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세계에서 모르는 것을 하나더 알게 되면, 행복해하겠지요. 그러나 언어 학자가 아닌 우리는 그 음가(音價)를 이미 알고 그 글자를 보면서 읽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제 제가 계속 소개해드릴 비문과 토기 등에 기록된 그림과 같은 글자들과 위의 표를 서로 대조해 보면, 더 재미있는 글 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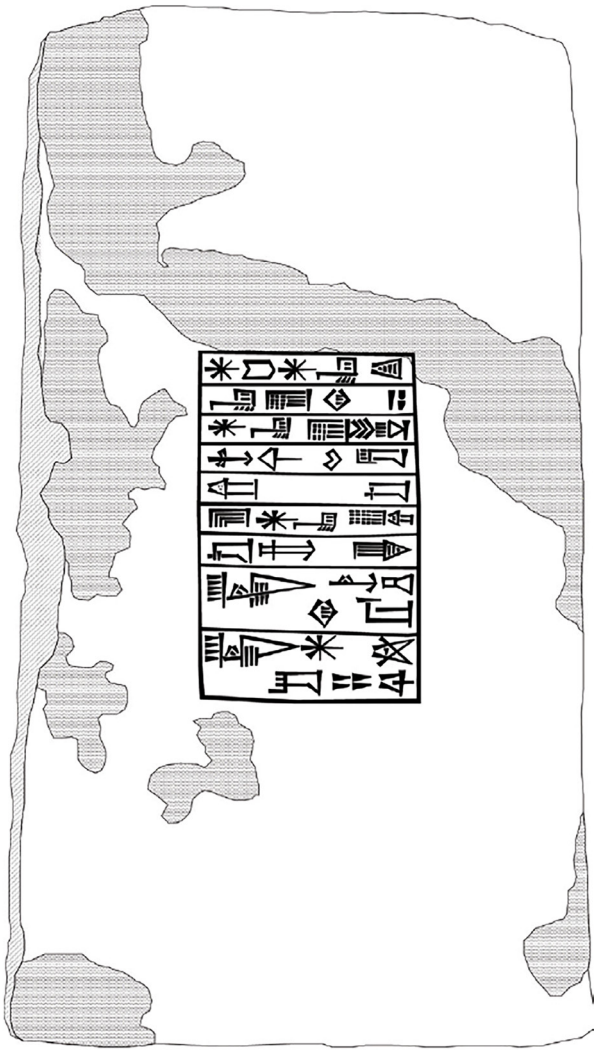
1 히브리어 알파벳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3 아마르-신



1. ʿAmar-ʾdSin(EN.ZU)°
2. Nibruʾki-a°
3. dEn-ʾlil-le°
4. mu ʾpàd-da°
5. sag-ús
6. é dʾEn-líl-ka°
7. nita kalag-ga
8. lugal Úrim/ ki-ma
9. lugal dUb-da / limmu-ba

“아마르-신, 니푸르(Nippur 도시 이름)의 신인 엔릴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 우르의 위대한 왕, 네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가 사랑하는 주인 엔키(Enki 마실 수 있는 물의 신이자 에리두 도시의 신)와 압수(Apsu 깊은 땅 속의 물을 다스리는 신)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늦은 나이에 낳은 외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양지와 음지로 나눌 수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삶의 길은 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어느 것 하나도 값지진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꼽아 보려면 저는 주저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려고 마음 먹었던 믿음의 결단과 그것을 몸으로 옮긴 용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을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온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창 12:1)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된 아브라함 인생 최대의 ‘버림(포기)’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神)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현재의 이라크)가 있었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는 각각의 도시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루며 살았고, 이 도시들은 저마다의 신(神)을 섬겼습니다. 가히 신들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요. 그냥 ‘하늘의 신’, ‘별의 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중앙 부분을 관장하는 신은 안/아누(An/Anu), 북쪽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엔릴/엘릴(Enlil/Elil)이었고, 남쪽 하늘은 엔키(Enki)가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별도 마르둑(Marduk)은 목성, 니누르타(Ninurta)는 토성, 네르갈(Nergal)은 화성, 인안나(Inanna)는 금성, 나부(Nabu)는 수성, 난나/신(Nanna/Sin)은 달, 우투/샤마쉬(Utu/Shamash)는 태양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사람들이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각각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도대체 몇명의 신들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신들을 필요에 의해서 섬겼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그가 우르 3왕조의 시대 끝자락(2112-2004 BCE)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섯 명의 왕들이 통치했었는데, 그 중에서 네번째 왕의 이름이 아마르-신(Amar-Sin)이었습니다. 아마르-신은 “달의 신(神)인 신(Sin)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르-신이 통치하던 시절에 쌓은 건물의 진흙 벽

돌이 에리두(Eridu)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마르-신, 니푸르(Nippur 도시 이름)의 신인 엔릴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 우르의 위대한 왕, 네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가 사랑하는 주인 엔키(Enki 마실 수 있는 물의 신이자 에리두 도시의 신)와 압수(Apsu 깊은 땅 속의 물을 다스리는 신)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우르(Ur)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주하였던 하란(Haran)은 달의 신(神)인 신(Sin)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도시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흙 벽돌의 발견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에서는 적어도 달의 신 뿐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물의 중요성 때문에 물의 신들인 엔키와 압수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신들의 형상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렸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한 분 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알며 함

께 살았던 친구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농경으로 먹고 사는데, 농업을 관장하는 신들을 부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아마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당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 수 많은 신들에게 각각 제사를 드리는 날, 모두가 모였는데 홀로 빠진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고, 신들을 대하는 사고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당해야 했을 차별을 감내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도 ‘나 혼자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이웃마저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응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신이라고 섬겼던 수 많은 신들에게서 돌아섰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자기 나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을 향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세레자 요한은 자기가 있던 광야로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눅 3:8)고 선포 하였습니다.

헬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율법들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이가,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참 자녀라는 겁니다.

세레 요한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공간)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 예배자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버려야 할 내 과거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망설임 없이 돌아서야(회개) 합니다.

사진설명

1 아마르-신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4 므깃도 인장



לשמע
שהמא
עבד ירבעם
여로보암의 종

예언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북왕국 출신의 호세아,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 그리고 정확히 그 출신을 알수 없는 요나, 예언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 세 선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연결 고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이 지나쳤을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북왕국과 관련하여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때입니다.

알고 보면 여로보암 2세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 익숙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축구에서 ‘언성 플레이어 Unsung Player’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 ‘언성 플레이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왕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입장에서 말이지요.

아합 왕조를 끝낸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는 8세기 초반과 중반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흔히들 통일왕국시대(사울, 다윗-솔로몬)와 분열왕국시대(솔로몬 이후)를 통틀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을 꼽으라면, 다윗과 솔로몬을 으뜸의 자리에 놓지요. 그 다윗-솔로몬의 치세에 확장하고 얻었던 영토를 그대로 다시 복원했던 유일무이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부흥, 그리고 평화와 번영’입니다. 북왕국의 왕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감히 ‘부흥,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엄청난

난 단어들을 여로보암 2세에게 붙일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앗시리아의 왕, 아수르-니라리 5세 (Assur Nirari V, 755-745 BCE)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앗시리아의 왕은 궁중의 고위 관료들의 막강한 힘에 눌려서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앗시리아의 기록에는 매년마다 왕들이 주변 나라들을 원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제국에 비해서 앗시리아는 원정한 나라들과 도시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로부터 탈취한 전리품과 공물들이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왕권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수르-니라리 5세 때의 기록에는 무려 4년이나 아무런 원정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권이 강력하지 못했고, 신하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이었다는 역사가의 평가가 숨어 있는 거지요. 결국은 그의 형제, 또는 아들이었을 티글랏필에셀 3세(Tiglath-Pileser III, 왕하 15:19 ‘불’)에 의해서 강제 폐위됩니다.

이 앗시리아 혼돈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고, 여로보암 2세는 앗시리아가 무질서와 불안 속에 있을 때, 그 영토를 앗시리아의 입구까지 확장하였습니다.(왕하 14:25) 41년에 걸친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왕하 14:27)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여로보암 2세를 참 아박하게 평가합니다. 다윗-솔로몬의 치세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 이 뛰어난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도록 부추긴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자”라고 질책한 것이지요.(왕하 14:24)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요나는 뚜렷이 북왕국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남편을 버린 음란한 여인으로(호 1-3), 아모스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넘쳐나는 왕국으로 묘사했습니다(암 2).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았다 뿐인가요? 왕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왕이라는 증거로 여겨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리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삶’과 ‘오래 통치함’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영토가 넓어지고 왕궁과 성전의 창고에 값진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을 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예언자들의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흥, 평화, 번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는지(신앙), 그들의 사법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사회)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고고학 발굴 100년의 역사를 통틀어, 안타깝게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유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의 하나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고위 관료였던 ‘셰마’(שמע)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장입니다. 1904년에 독일계 이스라엘 사람인 고틀리프 슈마허(Gottlieb Schumacher)가 텔-므깃도(Tel

Megiddo)를 발굴하면서 벽옥(Jasper)으로 만들어진 이 인장을 발굴하였습니다. 사자가 포효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장은 지금까지 발굴된 인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장이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구약 학자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가 1976년부터 이 인장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고, 이 인장이 발견된 므깃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에서 이 인장이 새겨진 티셔츠와 기념품들이 판매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인장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았던 ‘셰마의 인장’입니다.

이 인장이 발굴될 당시는 팔레스타인 땅(현재의 이스라엘 땅)이 오토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발굴된 이 유물은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의 오토만 제국의 술탄에게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의 가치를 술탄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술탄의 유물 창고 어디엔가 방치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이 인장의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인장의 행방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증명하는 최고의 유물이자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이 새겨진 유일한 유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진 유물을 보자니, 부흥,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부흥을 꿈꾸고, 평화를, 그리고 번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에 흠족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내 삶의 윤택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라져버린 여로보암 2세의 인장처럼 곧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Bolen, Todd. “The Reign of Jeroboam II: A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Th.M. thesis., The Master’s Seminary, 2002.
Shanks, Hershel. “First Person: Have You Seen This Sea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6[1] (2000): 4.

사진설명

1 므깃도 인장(Seal of Megiddo)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5 알렘포 코덱스



요즈음은 OO출판사에서 인쇄 출판한 성경들이 기독교서점의 매대 하나를 빼곡하게 채우고도 남지만, 과거에는 글자 하나 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1454년에 구텐베르크(Gutenberg)가 인쇄 기술로 성경책을 출판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성경의 보존은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가로로 긴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를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형태를 ‘두루마리’(Scroll)라고 하고, 현재의 책처럼 가죽이나 파피루스를 잘 펴서 가운데를 실로 꿰매는 형태를 ‘코덱스’(Codex)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문서 보존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기원전과 기원후를 기점으로 기원전에는 두루마리 형태가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원후에는 코덱스 형태의 문서 기록방식이 소개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원후 4세기가 되면, 코덱스 형태의 문서 보존 방식이 매우 일반적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책의 기록 방식은 ‘인쇄’입니다. 책의 내용은 사람이 만들지만, 책은 인쇄기가 찍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필사자(서기

관)가 손으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원본을 보면서 베껴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복사하듯 옮겨 적는 방식을 ‘필사’라고 하고, 필사한 글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은 가장 오래된 성경은 ‘알렘포 코덱스’(Aleppo Codex)입니다. 이 사본은 시리아 땅의 알렘포에 있는 회당에서 보관되었다고 해서 알렘포 코덱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시리아의 알렘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회당에서 보관하게 되었지만, 알렘포 코덱스가 기록된 곳은 이스라엘 갈릴리호수 서쪽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성전 멸망 이후, 유대인 공동체의 역사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난 랍비들이 이 도시에 이주해서 살았고, 그들이 가르치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탈무드’(Talmud)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책들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집대성된 탈무드(바벨론 탈무드 Talmud Bavli, 대략 500CE)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집

대성된 탈무드(예루살렘 탈무드 Talmud Yerushalmi/이스라엘 탈무드 Talmud Eretz Yisrael, 대략 350CE)이지요. 이 탈무드들 중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이스라엘 탈무드’라고 불리는 탈무드가 바로 티베리아스에서 집대성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기의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 히브리어 모음 음가 표기의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기준을 만든 학자들(랍비들)이 살던 곳이 바로 티베리아스입니다. 알렘포 코덱스는 10세기(대략 930CE)에 아론 벤 모세 벤 아셀(Ahron ben Moshe ben Asher)이 필사한 것인데요. 이 코덱스가 만들어질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읽고 쓰고 대화하던 도시가 티베리아스였습니다. 그러니 티베리아스에서 알렘포 코덱스가 기록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알렘포 코덱스가 매우 권위있는 사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베리아스에서 기록된 이 사본은 필사자인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다시 이집트를 거쳐 시리아의 알렘포까지 가는 기나긴 여행을 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잉크가 벗겨져 나간 곳이나, 곰팡이 때문에 코덱스의 일부분이 홍조가 생기면서 잉크가 보랏빛으로 변색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본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가상했던지, 오래된 많은 사본들 중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사본 중의 하나가 가장 오래된 알렘포 코덱스입니다.

이렇게 1,000년 이상 잘 보관되었던 알렘포 코덱스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1947년에 반 유대주의가 시리아 지역에 확산되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들의 폭동이 알렘포에서 있었고, 이들이 알렘포 사본이 보관된 회당을 파괴하고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UN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신생국가 설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약을 한 후, 심상치 않은 중동 정서를 읽은 시리아의 유대인들이 행여나 발생할 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 일부의 성경 두루마리들과 코덱스들을 회당 밖으로 옮겼고, 폭동이 일어나자 미처 옮기지 못한 것들을 회당 마루 바닥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 혼란 중에 알렘포 코덱스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대략 200쪽이 유실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가서, 전도서,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등의 부분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비록 소실되었으나, 남겨진 이 값진 알렘포 코덱스를 보존하기 위해 1958년에 시리아 사람들 몰래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1986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는 이 사본을 최대한 복원하고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부분들과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알렘포 공동체의 후손들이 회당을 빠져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기부받으면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 공동체의 후손은 1981년까지 자기의 서랍장 속에 뜯겨져 나간 알렘포 코덱스의 일부를 보관해 오다가, 이 프로젝트를 알고 기부하기도 하였고, 출애굽기의 한 부분은 미국으로 이주한 알렘포 공동체 유대인의 지갑 속에 보관되다가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자들의 노력 끝에 2001년에 ‘케테르 예루살라임’(Keter Yerushalaim)이라는 이름으로 알렘포 코덱스에 근거한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대학교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드라마틱한 배경이 숨어있는지 알게 된다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마주하는 자세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

사진설명

- 1 알렘포 코덱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
- 2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
- 3 코덱스 형태의 성경
- 4 옛 도시 티베리아스 위에 세워진 현대 도시 티베리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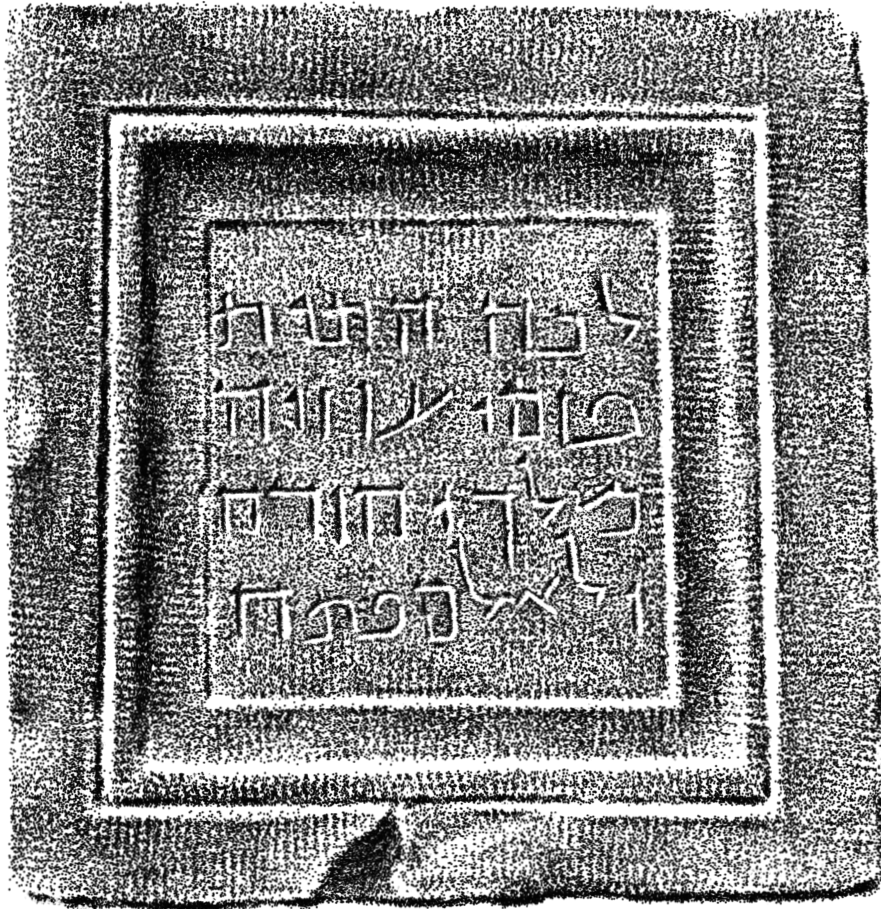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6 웃시야 비문



לכה התית
טמי עוזיה
מלך יהודה
ולא למפתח

이곳으로 가져왔다
웃시야의 뼈
유다의 왕
열지 마시오

“유다의 왕 웃시야의 뼈를
이곳에 가져왔다. 열지 마
시오.”

1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야망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이 그 사람을 잡아 먹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유다의 왕 웃시야(809~756BCE)는 열 여섯 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오십 이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언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12 예언서 중의 하나인 ‘스가랴서’의 예언자 ‘스가랴’가 아님)

웃시야는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웃시야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산지에는 가축들이 늘어났고, 평지에는 농부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곳곳에 물 저장고들을 만들어서 목축과 농업이 번창했습니다.(대하 26:9~10)

전쟁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땅의 가드, 야브네, 아스돗을 점령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에 유다의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사람들, 유다 광야 남쪽에 웃시야와 대적하던 마온 지역의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겼습니다. 웃시야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던지 이집트 사람들까지 웃시야를 알 정도였습니

다.(대하 26:3~8) 외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판의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고대의 군대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목축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군인으로 소집되는 형태인데, 자기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은 갑옷이나 무기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목축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입던 옷과 사용하던 농기구들이 전투복과 전쟁 무기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웃시야는 이천 육백 명의 지휘관들과 삼십만 칠천오백 명의 군인들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릿대로 무장 시켜서 언제라도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정예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시켜 새로운 무기를 고안해서 만들게 했고, 온갖 신식 무기들로 성을 보호했습니다.(대하 26:10~15)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웃시야의 힘이 강해지면서, 웃시야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였습니 다. 스가랴가 죽고 난 후에는 이런 웃시야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막을 수 없는 권력을 향한 욕구는 정치 뿐 아니라, 종교의 영역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

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제사장 아사랴를 대표로 팔십 명의 제사장들이 웃시야를 말렸는데도, 기어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분향을 하려고 할때, 악성 피부병이 온 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권력과 힘,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에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말리기는 하였지만, 강제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웃시야의 이마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는 황급히 성소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웃시야는 죽지 않았기에 죽는 날까지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였지만, 죽는 날까지 악성 종기(또는 나병)에 고통받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수도 없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성밖에 있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어디에 장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와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웃시야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지

냈다고 기록하였습시다만,(왕하 15:7)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왕실의 묘지에 장사지내지 않고, 예루살렘 바깥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누구의 기록이 맞다는 걸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밖, 성과 마주보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어디엔가 묻혔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1931년에 히브리대학교의 고고학자인 수케닉(Sukenik) 교수가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감람산의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의 유물 전시실에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35cm 정도가 되는 납작한 대리석 판을 보았습니다. 1865~1894년 사이에 감람산에 러시아 정교가 땅을 구입하면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 작은 박물관을 만든 후, 앤토닌(Archimandrite Antonin)이 그곳에 전시할 물품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들인 대리석 판입니다.

이 판은 무덤의 입구에 붙어 있어서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무덤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거나, 사람의 뼈를 보관하는 뼈상자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가져왔다/웃시야의 뼈/유다의 왕/열지 마시오.”

대리석 판에 쓰여진 글씨체의 특징으로 보아서 웃시야가 죽고 대략 700~750년 뒤(대략 30~70CE 사이)에 사람들이 웃시야의 묘를 보존하거나, 그의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글귀를 새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이 발견된 장소만 알면 열왕기와 역대기 중, 누구의 기록이 더 정확한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 아쉽게도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그 고고학 유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 편람이 분실되는 바람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굴되었는지, 누가 발굴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유물이 성경의 기록을 역사로 확증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궁금증들을 풀어줄 지. 그 때가 되면, 웃시야의 무덤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진설명

1 웃시야 비문 (King Uzziah Burial Inscription)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7 벧 셰아림 5번 석관

כִּן הֵן מִנְחוֹת אֶטִּיו בְּתוֹ שְׁלֹרְבִי
גַמְלִיאל בֶּן נַחְמִיָּה שְׁמֹתָהּ
בְּתוּלָה בֵּת עֲשָׂרִים וְשֵׁתִים
שָׁנָה וְאַסְיֹון בְּתוֹ שְׁלֹרְבִי
יְהוּדָה בְּנוֹ שְׁלֹרְבִי גַמְלִיאל
שְׁמֹתָהּ בֵּת תִּשְׁעָ
שָׁנִים
וְשֵׁשָׁה חֳדָשִׁים עֲמִידָת

בְּתוֹ שְׁלֹרְבִי גַמְלִיאל בֶּן נַחְמִיָּה שְׁמֹתָהּ
בְּתוּלָה בֵּת עֲשָׂרִים וְשֵׁתִים
שָׁנָה וְאַסְיֹון בְּתוֹ שְׁלֹרְבִי
יְהוּדָה בְּנוֹ שְׁלֹרְבִי גַמְלִיאל
שְׁמֹתָהּ בֵּת תִּשְׁעָ
שָׁנִים
וְשֵׁשָׁה חֳדָשִׁים עֲמִידָת

- | | |
|---|---------------------------------------|
| כִּן הֵן מִנְחוֹת אֶטִּיו בְּתוֹ שְׁלֹרְבִי | 1월 이 곳에 그들이 안식하고 있다. 아티오 랍비 (가말리엘)의 딸 |
| גַמְלִיאל בֶּן נַחְמִיָּה שְׁמֹתָהּ | 2월 (랍비) 가말리엘, 느헤미야의 아들, 그녀는 죽었다 |
| בְּתוּלָה בֵּת עֲשָׂרִים וְשֵׁתִים | 3월 처녀로 스물 두살 |
| שָׁנָה וְאַסְיֹון בְּתוֹ שְׁלֹרְבִי | 4월 그리고 아티온 랍비 (유다)의 딸 |
| יְהוּדָה בְּנוֹ שְׁלֹרְבִי גַמְלִיאל | 5월 (랍비) 유다, 랍비 가말리엘의 아들 |
| שְׁמֹתָהּ בֵּת תִּשְׁעָ | 6월 (아티온이) 죽었다. 아홉 (살) |
| שָׁנִים | 7월 (아홉) 살 |
| וְשֵׁשָׁה חֳדָשִׁים עֲמִידָת | 8월 육개월에. (그들의) 부활... |

1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하는 것은 같은 철학, 같은 정치 이념, 같은 신앙관들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인 복잡한 이익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이 둘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늘 충돌했습니다.

사두개는 ‘사독’이라는 말이고, 사두개파는 사독계열 제사장들의 권위를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과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들 인데요.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공동체에 속해 있기는 하였지만, 모든 제사장이 사두개파인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파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매우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에 비해서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했지만,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회당에서 치루어지는 거룩한 의식들은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의 가르침은 유대 공동체의 말초신경 끝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사두개파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최고의 권력층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모여들었던 거지요. 그래서였을까요?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권위적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무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이런 신분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골 마을의 농부와 어부들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모든 이들이 잠재적으로 바리새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와 비교해 보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다양하고, 경제적인 능력 또한 특징 지을 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두개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오경과 함께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랍비들의 가르침이 모세 오경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기록된 율법’이라 불렀고, 권위있는 조상들(랍비들)의 가르침을 ‘입으로 전해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만 유지가 된다면 어떤 정치체제이든, 어떤 문화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인지라, 율법적인 삶을 방해하는 문화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분리하다’인데,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적이지 않은 삶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이고, 악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역사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내 삶의 결과일 뿐,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꾸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공동체였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또 어떤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기에 인간은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해 나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는 천사나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구약성경의 전통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와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눅 20:27) 오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저 ‘스울’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1세기의 위대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52CE)입니다.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에게 붙여주는 ‘라반’이라는 호칭이 주어진 가말리엘은 예루살렘 산헤드린(대산헤드린)의 수장이었고, 바울의 선생이기도 했습니다.(행 22:1-3) 가말리엘의 무덤은 지중해 바닷가의 야브네(Yabneh)라는 곳에 있지만, 그의 딸의 무덤은 벧셰아림(Beth Shearim)이라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마을에서 살다가 나중에 야브네로 이주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말리엘의 딸은 죽은 뒤, 그 시신이 석관에 안치되었는데, 가말리엘의 가족은 처녀의 몸으로 죽은 그의 딸을 기억하며, 바리새파의 신앙을 따라 딸의 부활을 기대하는 기원을 석관에 새겨 넣었습니다.

“스물두살의 나이에 처녀로 죽은 느헤미야의 아들 랍비 가말리엘의 딸 아티오, 그리고 구년 육개월을 살다가 죽은 랍비 가말리엘의 아들인 랍비 유다의 딸 아티온이 여기에 쉬고 있다. 그들의 부활...”

사진설명

1 벧 셰아림 5번 석관 (Catacomb No.20 Sarcophagus No.5)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8 성경의 화폐(1) 렘돈(Lepton)



ΒΑΣΙΛΕΩΣ ΑΛΕΞΑΝΔΡΟΥ 왕 알렉산더



המלך יהונתן 왕 예호나탄

1

과부의 두 렘돈 이야기에 등장하는 렘돈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알렉산더 안네우스(103-76 BCE)의 시대에 만들어진 동전이다. 동전의 한쪽 면에는 배의 달이 새겨져 있다. 그 주위로 그리스어로 “왕 알렉산더” ΒΑΣΙΛΕΩΣ ΑΛΕΞΑΝΔΡΟΥ 라고 쓰여있다. 동전의 다른 쪽 면에는 별모양이 새겨져 있으면 그 주변에 히브리어로 “왕 예호나탄(여호나탄) המלך יהונתן”이라고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히브리식 이름이 쓰여 있다. 이 동전은 안네우스 시대 이래로 유다 지방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구약시대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일정한 가치의 기준이 되는 오늘날의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나 어떤 상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로 금, 은, 청동, 철과 같은 금속들이나 양, 염소, 새, 곡물, 기름과 포도주 같은 가축이나 농산물이 화폐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세겔이라는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땅을 헛사람 에브론에게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때 에브론에게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창 23:16) 주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사백 세겔 무게의 은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은의 모양은 덩어리 일수도 있겠고, 아니면 장신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발굴물 중에는 은을 철사와 같이 길게 뽑아 놓고 마치 실타래 처럼 뭉쳐 놓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은을 달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청동이나, 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를 세겔이라는 화폐로 생각하면 성경을 읽다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지불한 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위의 성경 구절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상인들은 바벨론(고대 바벨론 제국 1894 – 1595 BCE)의 무게 단위를 국제 통용 무게 단위로 사

용했습니다. 바벨론 세겔은 그 무게가 약 8.3-8.5g이니까, 400세겔은 은 3.4kg을 준 셈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겔의 단위는 항상 일정했는가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는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서 세겔의 무게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래의 예는 매우 간단히 몇가지를 소개하는 시대와 지역별 세겔의 표준 무게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건넨 세겔은 그 무게 단위가 수메르-바벨론 세겔이고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데, 그 때의 세겔은 아마도 이집트 세겔을 사용했을 겁니다.

수메르-바벨론 세겔
(아브라함 가족들의 시대)

8.3-8.5g

이집트 세겔 (출애굽 시대)

11-13g

앗수르 세겔 (히스기야 시대)

10g

바벨론 세겔 (포로기 시대)

8.3-8.4g

요세푸스 (예수님 시대)

13.6g

이렇게 세겔 무게 단위의 금이나, 은, 청동이나 철들을 교환하다보면 반드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저울을 가지고 다녀야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의 추도 가지고 다녀야합니다.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극복하

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동전입니다.

오늘날 동전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에서 국가 또는 지역 통치자들이 요즈음 식으로 말하자면 조폐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마다 세겔의 무게가 다르고, 저울 추를 믿을 수 없어서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조폐공사에서 균일하게 무게를 맞춘 금과 은들을 휴대하기 쉽게 동글 납작한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일정한 공인된 화폐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위에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동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식 동전이 지중해 주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과 편의성 때문에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마다 동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식물이나, 글자, 또는 통치자의 형상들을 문양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당시의 동전들의 이름을 많이 소개합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렘돈과 같은 동전의 이름들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동전의 단위는 ‘렘돈’(λεπτόν)이라는 단위입니다.

아마도 성전이였는지도 모릅니다. 헌금을 지나가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렘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 누구보다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는 칭찬과 함께 말

이지요.

그럼, 두 렘돈을 지금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마 20:10). 돈의 단위 상으로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렘돈은 그 고드란트의 절반(2 렘돈=1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 하루의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하루 노동으로 1데나리온(64 고드란트)을 받는다면, 한 시간에 8 고드란트를 받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시간 최저 시급이 2019년을 기준으로 8,350원이니, 1 고드란트(=2 렘돈)는 약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데나리온 = 64 고드란트

= 128 렘돈

1 렘돈 = 500 원

금이나 은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동전 렘돈을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가치로만 이해했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드리는 여인의 믿음의 무게로 그 두 렘돈을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을 믿음의 무게를 늘려나가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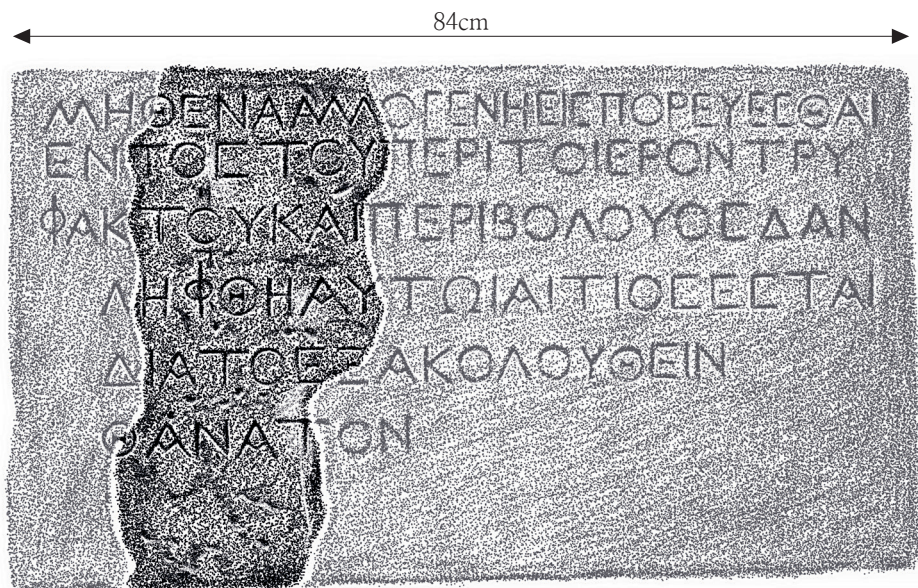
1 성경 속에 나오는 화폐인 렘돈(Lepton)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0 성전산 출입금지 돌판



“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 The Warning Inscriptions of Herod's Temple

1

문화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한 나라의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성전 건축물은 한 나라가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녹아 있었기에 그 나라의 물질 문명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 성전의 디자인은 한 나라의 정신문화를 녹여내는 틀이었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 한 국가의 내부적으로는 예배의 공간이지만, 외부적으로는 특별히 그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국가 선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이런 면에서는 고대 사회의 다른 성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신앙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설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헤롯이 건설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역시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건축물과 비교해서 그 아름다움이 뒤지지 않았을뿐더러, 거대한 돌들을 짜맞추기식으로 쌓아올린 기술력은 로마의 건축술보다 오히려 더 월등했기에 헤롯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온 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봐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의 성전 마당은 그 넓이가 대략 144,000㎡(43,56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뜰은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둘이 구분되었다고 해서 커다란 사각형의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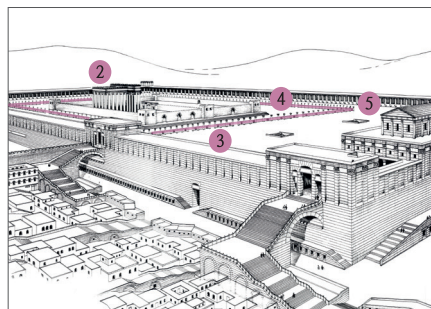
적을 반반씩 또는 몇대 몇으로 나누어 놓고 여기는 안뜰, 저기는 바깥뜰이라는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땅 한 가운데에 좀 더 높은 토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릴 거룩한 구역을 건축을 하고는 그 지역을 안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뜰에 비교하여 안쪽 뜰을 특별히 더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의 경계는 돌로 쌓은 낮은 담장이었습니다. 바깥뜰에 있는 외국인이 마음먹고 뛰어넘어 들어간다거나 마치 유대인인 척 열린 입구 어딘가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발각이 되면 그 때는 거룩한 영역에 부정한 이방인이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죽음’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이 오트만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1871년에 클레몽 가뉴(Charles Simon Clermont-Ganneau)가 성전산에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완벽한 돌판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가로가 약 84cm, 세로가 약 59cm가 되는 돌판인데요. 글자 한 개의 크기가 가로세로 약 4cm 정도가 되는 그리스어가 빼곡하게 6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래할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출입금지 명령은 헤롯 당시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도(눅 2:1; Augustus 63BCE-14CE; 통치 27BCE-14CE)가

승인한 것입니다. 헤롯은 아우구스도가 신임했던 유대아(Judea) 지방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 후에 아우구스도의 오른팔이자 전쟁 영웅인 아그립바(Marcus Agrippa)를 축하사절로 보냅니다. 아그립바는 아우구스도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로마 제국과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부탁하며 1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2인자인 아그립바도 성전 마당에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안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물만 인도해주고서 제사 드리는 장소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안뜰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영역이었으니까요. 이 돌판과 돌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37-100CE)가 기록해 놓았습니다(J.W. 5.5.3; 6.2.4; Ant 17.11.5).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리는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돌담장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위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고 적어 놓았거든요. 요세푸스가 말한 라틴어 경고판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그리스어 경고판이 발견되면서, 그의 역사 기록이 매우 신빙성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과 미쉬나(m. Sanh. 2:1~3)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전의 대략적인 모습이 매우 역사적인 것이라



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요세푸스와 미쉬나에 근거하여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불과 5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완벽한 형태의 돌판이 발견되었고(1871년), 60여년이 지난 1935년에는 1871년에 발굴된 돌판과 같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경고판이지만, 조각나버린 것의 일부가 예루살렘의 사자문(Lion Gate) 바깥쪽에 무덤들이 있는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말한 ‘중간에 막힌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율법’을 비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비유의 객체는 바로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던 이 돌담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나누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지역과 핏줄로 구분되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계십니다.

사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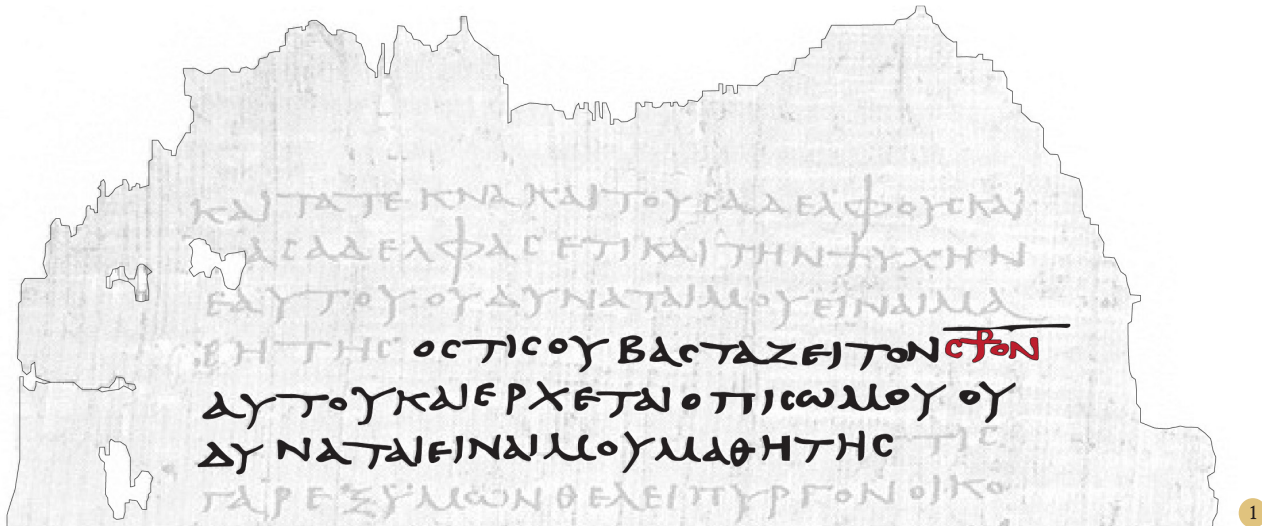
- 1 성전산 출입금지 돌판
- 2 성소
- 3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나누는 낮은 돌담
- 4 성전의 안뜰
- 5 성전의 바깥뜰 (이방인의 뜰)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1 타우로 십자가(Staurogram)



σταυρον

“십자가를 지다”라는 원래 형태

σταυρον

생략된 네 개의 알파벳

ταυρ ρ

생략된 네 개의 알파벳 중에서 맨 앞 글자 ‘타우’와 맨 뒤 글자 ‘로’가 결합

σρν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의 줄임 형태

1952년 이집트에서 스물 두개의 파피루스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들을 마틴 보트메르 (Martin Bodmer)라는 고대 문서 수집가가 구매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들에는 구약과 신약성경,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글들 뿐 아니라,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 (Homer)와 극작가 메난더(Menander)의 문학 작품까지 아주 다양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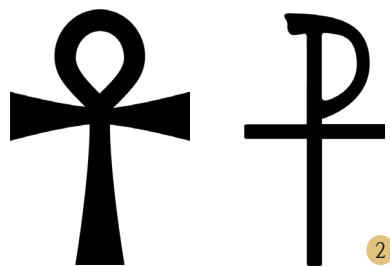
특별히 ‘파피루스 75’ 또는 ‘파피루스 보트메르 14-15’라고 불리는 신약성서 파피루스가 이 소장품들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는 바티칸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파피루스는 대략 기원후 175-225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파피루스에는 누가복음 3장 18절 부터 누가복음 끝까지와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본입니다.

에딘버러대학교의 신약학 석좌교수인 래리 허타도(Larry W. Hurtado)가 이 사본을 읽던 중 누가복음 14:27을 주목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어 대문자로 기록된 파피루스 75에서 위 구절의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은 문장 형태상으로 “스타우론”CTAYPON이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의 모양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CTAYPON이라는 그리스어의 중간 알파벳 TAYP가 없고, 대신하여 마치 그리스어 ‘타우’ T와 ‘로’ P가 서로 겹쳐진 듯한 그림문자 Ϛ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허타도는 이미 2세기 또는 3세기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양의 십자가(타우로 십자가 Taurho Cross)가 “십자가를 지다”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증거라고 제

시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십자가의 모양은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모양을 형상화 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모양이라든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구체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십자가의 형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자의 형태가 있고, T자 형태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요 19:19)라는 말을 근거로 +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참 다양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했던 말,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라는 말을 근거로 그린 중세의 많은 성화들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 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모습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십자가에 매달렸을지를 알아보면 예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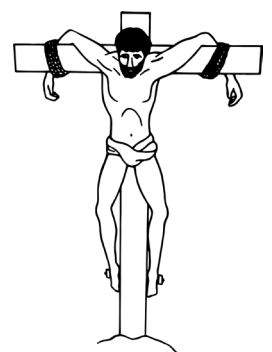
십자가형의 대략적인 모습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사람을 피흘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3-4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호흡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질식사 시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항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달려 있는 사람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치심을 가지게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미터 내외로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매달린 사람의 눈이 마주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곳은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도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나있는 성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있는 채석장의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이 뻔히 볼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1968년에 예루살렘의 북쪽 기브앗 하미브타르(Giv'at ha-Mivtar)에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하던 중 우연히 1세기의 무덤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족의 무덤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뒤꿈치뼈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략 24-28세 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사망연대는 대략 기원후 70년 전후였습니다. 이 사람의 뒤꿈치 뼈를 관통하는 못의 방향과 모양으로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 모습이 파피루스 75의 타우로 십자가(Staurogram Cross)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아닐까요?



사진설명

- 1 파피루스 75의 누가복음 14장 27절. 이 파피루스는 40줄의 완벽한 파피루스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필요한 몇줄 만으로 그래서 소개한다. 진한 글씨 부분은 누가복음 14장 27절이며, 붉은 색글씨는 “스타우론”(CTAYPON) 이라고 읽는다. 그 뜻은 “십자가를 지다”이다.
- 2 그리스어 ‘타우’ T와 ‘로’ P가 서로 결합된 형태의 초대교회 십자가.
- 3 1968년 기브앗 하미브타르(Giv'at ha-Mivtar)에서 발굴된 1세기 유대인의 못이 박힌 발뒤꿈치 뼈이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가족을 매장한 동굴 무덤에서 발굴되었다. 이 사람이 처형당한 시기는 대략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후인 70년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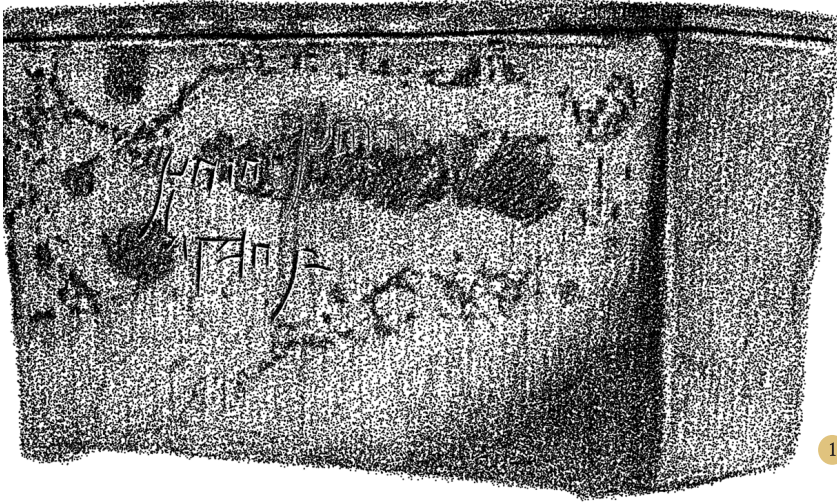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2 하가콜의 아들 요한(Yehochana Son of Hagaqol)



יהוחנן
בן חגקול

‘요한 하가콜의 아들’

지난 달에는 타우로 십자가(Staurogram)에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그 뒤꿈치 뼈의 주인공이 발굴된 동굴 무덤과 뼈상자(Ossuary)를 소개 삼아 그 동굴 무덤의 모양과 그곳에서 발굴된 뼈들이 이야기하는 무덤의 주인 가족들의 역사, 그리고 비교적 부유했던 사람들의 매장 방식인 이스라엘의 2단계 매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8년에 예루살렘의 북쪽 기브앗 하미브타르(Giv'at ha-Mivtar)에 택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유대인의 동굴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Avraham Biran)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헤롯 왕조 시대의 토기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기원전 37년에서 기원후 70년 사이에 사용된 가족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굴 형태의 무덤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훨씬 전인 기원전 3100년에서 29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비약적으로 많은 동굴 무덤들이 가나안 땅에 증가합니다. 왜 동굴형태의 무덤이 만들어 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몇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조상 숭배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조상숭배를 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조상들의 유골들을 동굴 무덤에 안치해 놓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한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아모스 6장 7절과 예레미야 16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영향으로 동굴 무덤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지리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스라엘의 땅은 연한 석회질 땅으로 동굴들이 형성되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조상이 죽으면 땅을 파는 것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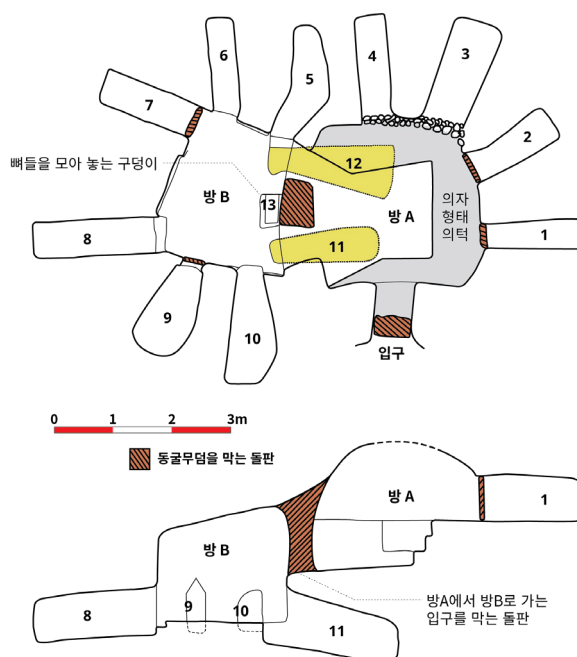
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나, 연한 석회질 땅에 동굴을 파서 안전하게 시신을 보존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지요.

처음 동굴 무덤이 만들어 졌을 때에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매장되었으리라 추측합니다. 그러다가 후대로 가면서 비교적 동굴 무덤 양식이 일반적이 되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동굴 무덤을 만들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굴 무덤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브앗 하미브타르에서 발굴된 무덤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거실같은 큰 방으로 들어가면 사방으로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굳이 말하자면 지하 2층 구조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처음 넓은 방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작은 방이 4개가 있고, 한층 더 내려가면 또 다른 큰 방에 작은 방 8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적어도 몇십명 단위의 대가족이었는데요. 그렇게 많

은 가족들을 최소의 공간에 매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굴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를 싸서 작은 방들에 안치합니다. 그러면 자연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2년 안에 시신이 모두 부패하겠지요. 그러면 그 뼈들을 추려 모아 큰 방에 있는 구덩이(Pit)에 한데 모읍니다. 이 동굴 무덤의 경우는 대략 1미터 정도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어요. 그러니 정기적으로 무덤의 방들은 계속 비워지고 사람이 죽더라도 계속해서 매장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 무덤의 구덩이에는 할아버지의 뼈부터 그 손자의 손자의 뼈까지 한데 뒤섞이고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스올(지하세계)로 내려간다’라는 뜻을 이와 같이 ‘땅 아래의 (또는 땅 속에 있는) 동굴 무덤에 매장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열조에게도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동굴 무덤의 매장 양식에서 비롯된 죽음의 표현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앗 하미브타르의 발굴 현장에서 동



굴 무덤과 함께 뼈상자(Ossuary)들이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뼈상자에 유골을 수습하는 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2차 매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죽고 난 다음 동굴 무덤의 방에 매장을 하고 그렇게 매장한 사람들의 뼈를 나중에 한꺼번에 구덩이에 모아 놓거나, 또는 죽은 사람들 중에서 기념할 만한 사람들을 (또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뼈들을) 석회암을 잘 깎아 만든 돌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런 2차 매장 방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고, 죽은 선조들을 기념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동굴 무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브앗 하미브타르에서 발굴된 무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류층 사람들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한 뼈 상자에는 해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료 중의 하나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뼈가 담겨 있노라 기록되어 있는 뼈상자가 발굴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문의 마지막이 그리 행복했던 가문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골해부학자들(骨解剖學 Osteology)의 연구 결과 이 동굴무덤에서 발굴된 8개의 뼈상자에는 총 17명의 뼈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뼈들을 분석해 본 결과 다섯명은 일곱살이 되기 전에 죽었구요. 대략 75%에 해당하는 13명이 서른 일곱살이 되기전 죽었습니다. 오십세를 넘긴 사람은 딱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가운데서 한 아이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 여덟개의 뼈상자 중의 하나에서는 지난 달에 잠시 소개했던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의 뒤꿈치 뼈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뼈상자에는 “요한, 하가콜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뒤꿈치 뼈를 하가콜의 아들 요한의 뒷꿈치 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진설명

- 1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하가콜’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토기 장이 요한’ 또는 ‘십자가형을 당한 요한’이라고 고쳐 읽어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기록된 형태를 존중하여 ‘하가콜의 아들 요한’이라고 번역한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3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그리고 때로는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때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성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또는 “성경 말씀은 변하였다.”라는 두 개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번째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고, 두번째 문장은 매우 신성모독적인 말이면서 불쾌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말이 완전히 다른 말도 아니고, 서로 부딪치는 말도 아닙니다. 둘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과거 사해 바다 북서쪽 곁, 쿨란(Qumran)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살던 야하드(Yahad) 공동체의 전통에서 보건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잘못 썼을 때에는 쓰던 양피지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쓰려면 대략 90마리 이상의 양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양피지 조각들을 꿰매어 긴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양 한마리를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양피지 조각의 크기는 제각각이겠지만, 이 조각의 가격이 비쌌을 것은 분명합니다. 양피지 조각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쿨란의 야하드 공동체가 살던 때보다 대략 200~300년 뒤이기는 하지만,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244~311년) 시대에 대략 30cm의 양피지의 가격이 40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은 3g 이었다고 하네요. 오늘날의 은 시세로 따지면이야 10만원 정도의 가치이지만, 과거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수 없지만,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98~117년)에는 1 데나리온이 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 40일을 꼬박 일을 해야 가로 세로 대

략 30cm가 되는 양피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지요. 트라야누스 시대보다도 100여년을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쿨란의 야하드 공동체의 시대라면, 그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마 더 비쌌을 수도 있었겠습니 다. 하여튼 대단히 비싼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피지에 성경 말씀을 쓰다가 잘못 썼을 때, 야하드 공동체가 감당해야했을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었을까요? 성경을 제외한 다른 두루마리들에는 글을 잘못 썼을 때, 줄을 긋고 다시 쓰거나, 줄과 줄 사이에 빠진 내용이나 더할 내용을 작은 글씨로 첨가한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쿨란에 살던 야하드 공동체의 전통을 모든 유대인이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필사본 중에서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이라고 불리는 필사본이 있습니다. 현재 구약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필사본이기도 합니다. 이 필사본은 1008년 또는 1009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필사되었습니다. 카이로의 유대교 회당에서 사용되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레닌그라드(현재는 성 페테스부르크 St. Petersburg라고 불림)의 유대인 회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3년 이후로는 성페테스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사본을 연구하던 학자가 사본을 읽던 중 필사자가 잘못 쓴 부분을 고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레위기 25:36 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필사본의 ‘너와 함께’라는 부분에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א)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또다른 글씨의 잉크 자욱을 본 것입니다. 모양은 딱 알파벳 ‘알렙’(א)입니다.

“왜 그랬을까?”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략 두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레위기 25:36는 두가지 다른 형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쓰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으로 쓰는 형태인 것이지요. 1,000년 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은 이 두가지 형태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알렙’으로 쓰여진 사본을 보고 베껴 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본을 필사자들이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본에는 ‘아인’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필사자들이 토론을 한 결과 ‘아인’이 맞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썼던 ‘알렙’을 지우고 ‘아인’

으로 고쳐 썼다는 설명입니다.

두번째 대답은 이 필사자가 실수로 ‘아인’을 ‘알렙’으로 잘못 쓴 것을 모르고 양피지들을 꿰매어 책으로 만든 후에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알렙’을 지우고 ‘아인’으로 바꿔 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발음상 ‘알렙’과 ‘아인’이 매우 헛갈리거든요.

사실 ‘알렙’이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의미적으로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인’이면 둘 모두가 매우 매끄러운 문장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도 ‘아인’을 기준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알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의 문맥과 취지에 맞추어 그 내용이 심각하게 변하는가?”라고도 물어 볼 수 있겠지요. 대답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렙’으로 써도, 읽으면서 ‘아인’으로 이해하거든요. 이런 것을 학자들은 좀 유식한 말로 ‘크티브 כתיב-케레 ארץ’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맨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또는 “성경 말씀은 변하였다.”는 말은 둘다 맞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사진설명

- 1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 레위기 25장 36절의 일부와 37장 초반부.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 아래에 희미하게 지워진 알파벳 ‘알렙’이 보인다.
- 2 사본의 최초 필사자는 처음에는 알렙으로 썼다. 그러나 알렙이 되면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철자법과 음운학 상으로 ‘이마크’가 아니라 ‘이메카’라고 모음이 표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알렙이 될 경우 뜻이 ‘당신의 어머니’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형제를 당신의 어머니를 사십시오.”라고 매우 어색한 번역이 된다.
- 3 사본의 최종 점검자(또는 필사자)는 최초 필사했던 알렙을 아인으로 고쳐썼다. 그래야 음운학적으로 모음도 맞고, 의미도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양피지를 새로 쓰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양피지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미 양피지들을 엮어서 책의 형태로 만든 뒤, 뒤늦게 발견해서 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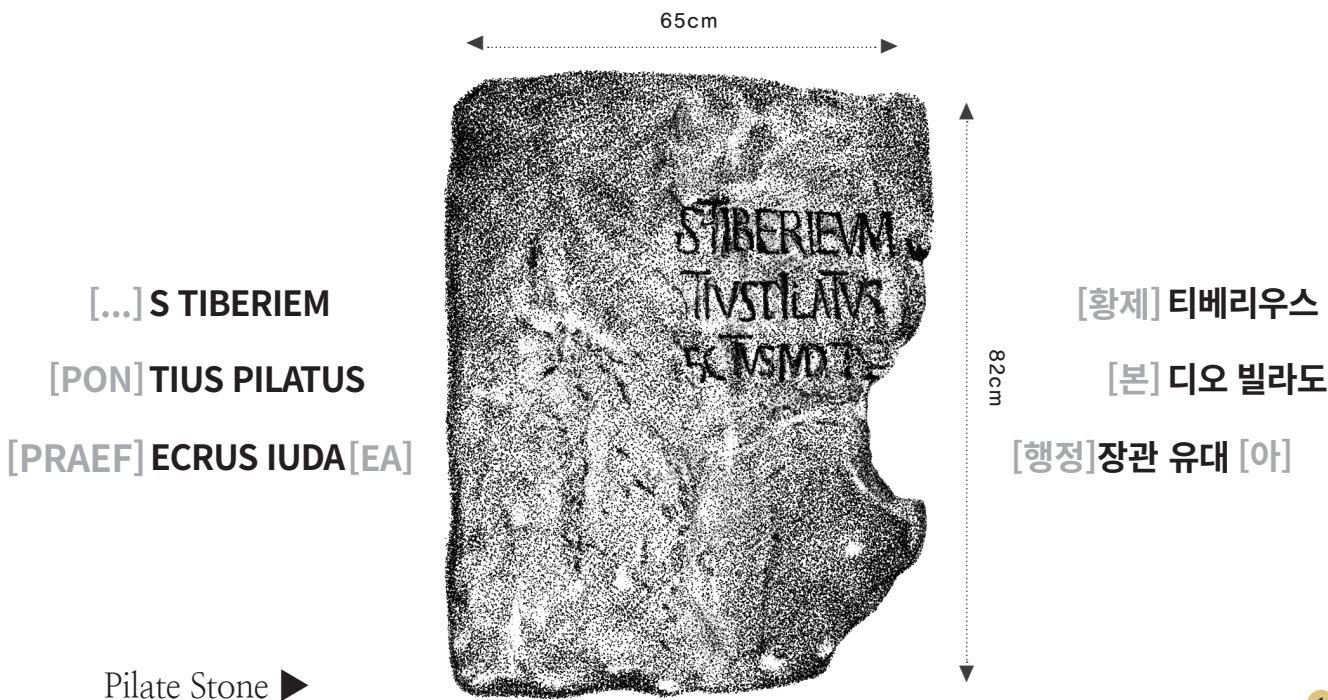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4 빌라도의 석비(Pilate Stone)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us)는 로마의 속주의 하나인 유대아(Judea) 지방의 다섯번째 행정장관(Praefectus Iudaea)이었습니다(기원후 26년-36/37년). 빌라도는 유대아 뿐만 아니라, 유대아 남쪽의 이두매아(Idumaea) 지역과 유대아의 북쪽인 사마리아까지 모두를 관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들을 통틀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가 두 개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유대아 사람들의 수도이자 이두매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이르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산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지만,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 거주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예루살렘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중심지는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Caesarea Maritima)였습니다. 이 곳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거주지이자 동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기록에는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위대(Praetorian Guard)의 고위 장교였던 세야누스(Sejanus)의 천거로 유대아의 행정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야누스가 31CE에 몰락하고 처형당하면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역사가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더 열정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 아

닌지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연대기(Annals 15.44)에서 그리스도(Christus)가 티베리아스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는 짧막한 기사를 소개합니다만, 이런 기록만으로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명쾌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빌라도와 연관된 사건은

- (1)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구실 삼아 재판을 걸었다(마 27:1~2,11; 막 15:1~5; 눅 23:1~2; 요 18:28,33~37)
- (2) 예수님이 죄없음을 알게 되어서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마 27:18; 막 15:10,14; 눅 23:13-16; 요 18:38; 19:4)
- (3) 유대인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 누굴 선택할지 물었다(마 27:15~26; 막 15:6~15; 눅 23:18~25; 요 18:39~40)
- (4) 빌라도가 손을 씻고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선언했다(마 27:24)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보다 빌라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의 다른 행적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나?”(요 18:38)며 묻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마치 왕처럼 자색 옷을 입고 유다 사람들 사이로 끌려나올 때, “보라, 이 사람으로다”(요 19:5)라며 유대인들의 기소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경

의 기록은 빌라도가 그리 특별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문제였고, 예수님을 죽게한 책임을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모두 돌리려는 듯한 뉘앙스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같은 시대 사람인 필로(Philo 10BCE-45CE/50CE?)가 평가하는 빌라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필로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560km 떨어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헬라 문화와 학문에 능통하고 유대교에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헬라식으로 증언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필로의 동생 리시마쿠스(Alexander Lysimachus)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으니, 필로의 집안이 사실상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을 이끄는 정신적-사회적 리더였다고 말



할 만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로마 제국과 필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로의 동생 리시마쿠스는 티베리우스 황제(14~37CE 재위)의 어머니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었고, 리시마쿠스의 아들인 알렉산더(Tiberius Alexander)는 티투스(Titus)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을 함락할 때(70CE) 예루살렘 공격에 함께 참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필로는 로마와 유대인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필로는 조금더 객관적으로 로마 사람 빌라도를 평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필로의 글에서는 빌라도를 매우 박하게 평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와 유대인의 대표로 칼리굴라 황제(37-41CE 재위)에게로 간 필로는 유대아의 왕 아그립바 왕의 편지를 대신 전하노라며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로 빌라도를 묘사합니다. “그는 융통성이 없이 완고합니다” “그는 고집이 셉니다” “그는 잔인합니다” 그는 “심술궂습니다” “그는 성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관으로서의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런 명사들로 정의합니다. “뇌물을 즐김”, “폭력적임”, “강탈”, “협박”, “독설을 내뿜음”, “재판을 받지 않은 죄수들을 처형”, “포악한 야만성”

빌라도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지만, 가이사랴에 거주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역사적인 기록물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도 발굴이 되었거든요. 1961년 가이사랴를 발굴하던 이탈리아 고고학자 프로바(Antonio Frola)가 극장을 발굴하던 중 무대를 오르내리던 계단에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확인해보니,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새겨 놓은 석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가 무너진 뒤 기원후 4세기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면서 극장의 무대를 오르내리던 계단으로 재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진설명

1 빌라도의 석비(Pilate Stone)

2 가이사랴빌립보(Caesarea Maritima)의 원형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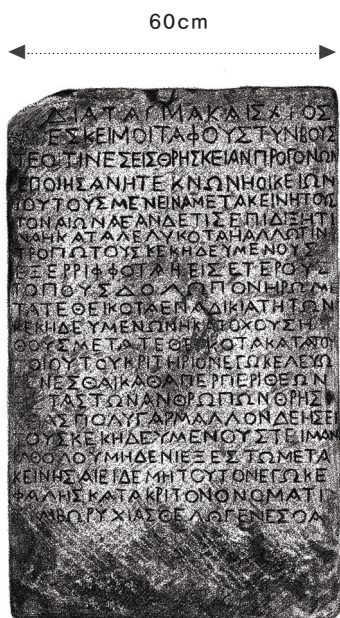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5 나사렛 석비(Nazareth Inscription)



Nazareth Inscription ▲

1. ΔΙΑΤΑΓΜΑ ΚΑΙΣΑΡΟΣ
2. ΑΡΕΣΚΕΙ ΜΟΙ ΤΑΦΟΥΣ ΤΥΝΒΟΥΣ
3. ΤΕ ΟΙΤΙΝΕΣ ΕΙΣ ΘΡΗΣΚΕΙΑΝ ΠΡΟΓΟΝΩΝ
4. ΕΠΟΙΗΣΑΝ Η ΤΕΚΝΩΝ Η ΟΙΚΕΙΩΝ
5. ΤΟΥΤΟΥΣ ΜΕΝΕΙΝ ΑΜΕΤΑΚΕΙΝΗΤΟΥΣ
6. ΤΟΝ ΑΙΩΝΑ ΕΑΝ ΔΕ ΤΙΣ ΕΠΙΔΙΕΗ ΤΙ
7. ΝΑ Η ΚΑΤΑΛΕΛΥΚΟΤΑ Η ΑΛΛΩΤΙΝΙ
8. ΤΡΟΠΩ ΤΟΥΣ ΚΕΚΗΔΕΥΜΕΝΟΥΣ
9. ΕΞΕΡΡΙΦΟΤΑ Η ΕΙΣ ΕΤΕΡΟΥΣ
10. ΤΟΠΟΥΣ ΔΟΛΩ ΠΟΝΗΡΩ ΜΕ
11. ΤΑΤΕΘΕΙΚΟΤΑ ΕΠ ΑΔΙΚΙΑ ΤΗ ΤΩΝ
12. ΚΕΚΗΔΕΥΜΕΝΩΝ Η ΚΑΤΟΧΟΥΣ Η ΛΙ
13. ΘΟΥΣ ΜΕΤΑΤΕΘΕΙΚΟΤΑ ΚΑΤΑ ΤΟΥ
14. ΤΟΙΟΥΤΟΥ ΚΡΙΤΗΡΙΟΝ ΕΓΩ ΚΕΛΕΥΩ
15. ΓΕΝΕΘΑΙ ΚΑΘΑΠΕΡ ΠΕΡΙ ΘΕΩΝ
16. ΕΙΣ ΤΑΣ ΤΩΝ ΑΝΘΡΩΠΩΝ ΘΡΗΣ
17. ΚΕΙΑΣ ΠΟΚΥ ΓΑΡ ΜΑΛΛΟΝ ΔΕΗΣΕΙ
18. ΤΟΥΣ ΚΕΚΗΔΕΥΜΕΝΟΥΣ ΤΕΙΜΑΝ
19. ΚΑΘΟΛΟΥ ΜΗΔΝΙ ΕΞΕΣΤΩ ΜΕΤΑ
20. ΚΕΙΝΗΣΑΙ ΕΙ ΔΕ ΜΗ ΤΟΥΤΟΝ ΕΓΩ ΚΕ
21. ΦΑΛΗΣ ΚΑΤΑΚΡΙΤΟΝ ΟΝΟΜΑΤΙ
22. ΤΥΜΒΩΡΥΧΙΑΣ ΘΕΛΩ ΓΕΝΕΣΘΑΙ

1. 황제의 칙령
2. 이것은 [1] 무덤과 묘실에 대한 나의 결정이다.
3. [1 누구든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부모
4. 또는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만든]
5. (이 무덤과 묘실은) [2]영원히 평온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6. [2 무덤이 있는 동안] 만약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한다면,
7. 그것(무덤과 묘실)을 파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8. 무덤에 장사된 이를 고집어 내거나, (시신을) 다른
9. 곳으로 [3]악의를 가지고
10. [4] 옮기거나, [3 모욕을 줄 목적으로]
11. [4 시신을], 또는 무덤과 묘실을 막는 돌을 옮기거나
12. 다른 돌들을 뒤바꿔 놓으면,
13. (고발된) 그 사람은 [5]
14. [6] 재판에 넘겨진다. [5 신들의 관습을 어긴 사람들이 받는 재판과 같은]
15. [6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어겼으므로]
16. 왜냐하면, [7]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17. [7 매장된 이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18. 그러므로, 누구도 (무덤과 묘실의) 그런 것들중
19. 어떤 것도 옮기지 못한다.
20. 달리 말하자면, [8] 그 사람은
21. 사형에 처한다
22. [9 무덤과 묘실을 훼손한]

1

프랑스 루브르(Louvre) 박물관의 큐레이터였던 프리너(Wilhelm Froehner)가 자기 개인 소장고에 보관하던 오래된 대리석 돌판 하나가 그의 사후(死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대리석 석판에는 “1878년에 나사렛에서 온”이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그 이후로 ‘나사렛 비문’(Nazareth Inscription)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리석 돌판에는 22줄에 걸쳐 그리스어로 쓰여진 로마 황제의 칙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칙령은 무덤과 묘실에 대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필체를 보아서 대략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록 “1878년에 나사렛에서 온”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기는 하였지만,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 석판의 존재에 대해서 고고학자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이 대리석 석판에 프리너가 “나사렛에서 온”이라고 적어놓기는 하였지만, 정말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나사렛에서 왔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리석 석판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는데, 나사렛과는 너무나 떨어진 터키 지역의 코스(Kos) 섬에서 뜬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 부류의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이 칙령이 로마 배경에서 로마 제국의 터키 지역에서 발효되었던 칙령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원전 30년대에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의 권력을 뒷배 삼아 코스 섬을 다스리던 통치자 니키아스(Nikias)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가 가혹하여 그의 학정에 치를 떨던 섬의 주민들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

고 사망한 후(31BCE), 더 이상 정치적으로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니키아스가 죽자(20BCE), 그의 무덤과 시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그 방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당대의 로마 시인들이 이 사건을 노래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신약 성경의 아우구스도 황제)는 이런 야만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칙령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가설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매장 방식이 주로 화장이었고, 가족 묘의 형태는 로마의 무덤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칙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가족묘를 묘사하고 있기에 로마나 소아시아의 매장 풍습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과 묘실을 막는 돌들을 두는 매장 방법은 전형적인 유대아(Judaea)식의 매장 방법이거든요.

둘째로는 로마에서는 극 소수의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이 호화로운 개인 무덤 건축물(Mausoleum style tomb)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건축물에 침입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치스러운 부장품을 약탈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칙령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호화로운 무덤 건축물 역시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무덤이었으므로 이 칙령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칙령의 시작은 로마의 역사적인 정황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로마의 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칙령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전 영토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칙령이 내려졌으며, 유대아 역시 이 칙령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아 지역에는 특별히 가족묘 형식의 동굴 매장 형태가 반영된 칙령이 대리석 판에 기록되어 로마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칙령은 예수님 시대는 물론, 그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사회에서 유효한 법으로 지켜졌습니다. 이 칙령을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28장의 한바탕 소동을 한 걸음더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뒤늦게 무덤이 빈 것을 알게 된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지요. 이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노라고 거짓말할 것을 종용합니다(마 28:11-15). 그런데, 이 거짓말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지 모른

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번째로는 자신들에게 날아올 비난의 화살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의 부활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알려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우쭐대던 장로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 유대아의 사람들도 가만 있을리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비문의 칙령은 아우구스도 황제(아우구스투스 Augustus 황제)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르면, 무덤이나 묘실을 훼손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덤의 돌을 옮기고 시신을 옮긴 사람들이라고 고발한다면, 황제의 칙령을 어긴 셈이 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아에서 없앨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말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꽤나 어려웠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설명

1 나사렛 석비

2 나사렛빌리지에 재현된 예수님 시대 무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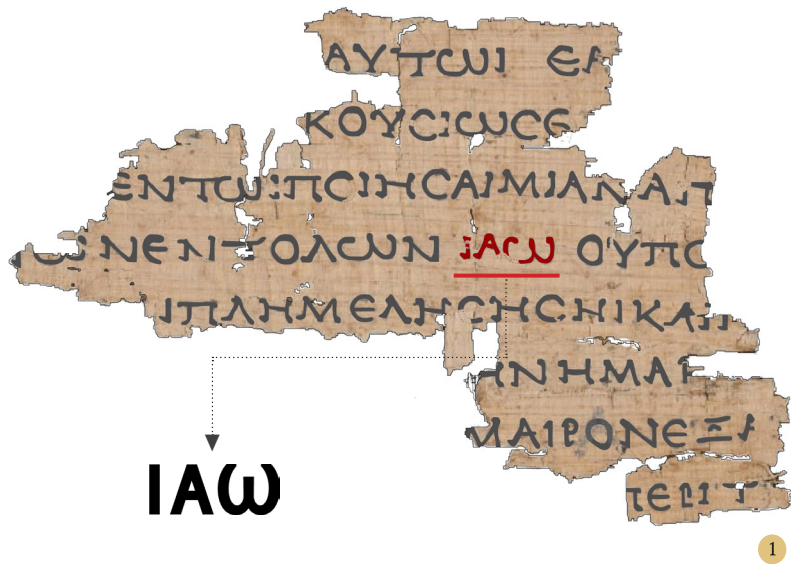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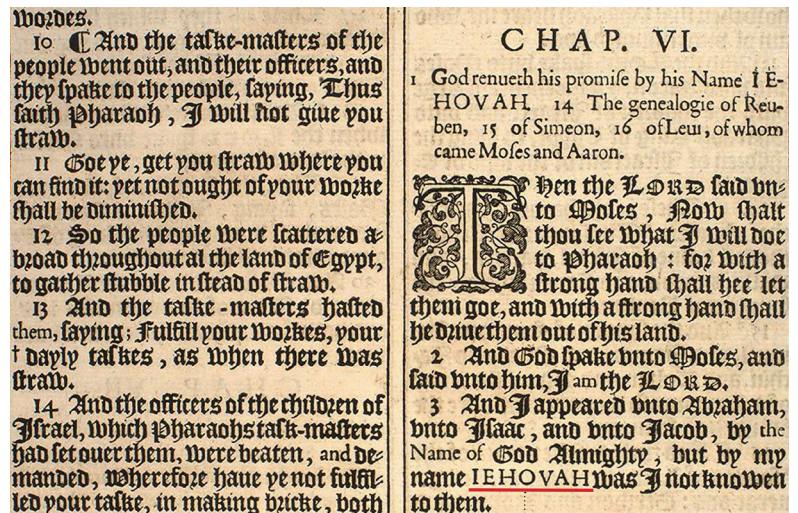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6 그리스어 레위기, 하나님의 이름(DSS 4Q120-4QpapLXXLevb)



▲ 쿰란 4번동굴에서 발굴된 그리스어 번역 레위기 4장 26~28절 (DSS 4Q120-4QpapLXXLevb)



▲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영어 번역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י (요드), ה (헤이), ו (바브), ה (헤이)라는 네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기록합니다 (Tetragrammaton). 히브리어 성경 뿐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יהוה 라고 소개합니다 (참조. 메사 석비). 영어로는 YHWH 라고 쓰지요. 그런데 영어 철자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네개의 글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굳이 우리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ㄷㅇㅇㅇㅇㅇㅇㅇ”이라고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는 원래부터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은 관습처럼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었거든요.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표기 전통은 곧 매우 난처한 경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신 이후에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 יהוה (요드-헤이-바브-헤이)는 모세 이후 몇 백년 뒤에 결국 아무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히. שְׁמֵהּ 하셈), 또는 “주님” (히. יְיָ 아도나이)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יהוה를 “the Lord” 라고 번역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 יהוה를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아마 우리 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과감하게(?) 부르는 것은 초기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1611년 이래로 영어 성경의 표준이 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KJV)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출 6:3), 그 이름 יהוה를 Jehovah(Jehovah, 흠정역이 개정되면서 Jehovah로 영어식 표기가 바뀜)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흠정역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번역한 미국표준역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Jehovah 라고 번역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성경이 전래될 때, 아마 영미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던 성경책의 하나님 이름 Jehovah 를 그대로 음역해서 “여호와”로 표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유대인들도 알지 못한 יהוה의 모음 음가를 알았을까?” 이것은 매우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 (הוהי, ADONAI)의 모음을 떼어다가 그대로 히브리어 (YAHOWAH)에 적용해서 발음한 것입니다 (참조. 히브리어 ‘요드’ י 는 영어로 Y, I 또는 J 로 환원이 가능함).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 יהוה를 어떻게 읽어야할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히브리

어와 고대 셈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고고학 발굴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에 위치한 고대 에블라 (Ebla, Tel-Mardikh)에서 1974-1976년 사이에 8,000여개의 토판들이 대규모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판들은 대략 2,500-2,250 BCE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토판들에 새겨진 신들의 이름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יהוה를 고대 서아시아식으로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신의 이름이 쓰여진 에블라 토판의 썩기 문자를 읽으면 ‘이아베일루’ (la-á-ve-ilu, la-ve-ilu) 또는 ‘이아우움일루’ (la-ú-um-ilu)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발음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야웨’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웨’라고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더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18 왕조 (약 1550-1295 BCE)부터 지중해 동편 이스라엘 골짜기-아쉬켈론-시나이 반도 지역에 이르는 지중해 동쪽 해변가에 살았던 샤수 (Shasu)에 대한 아멘호텝 3세 Amenhotep III (기원전 14세기)와 람세스 2세 Ramesses II (기원전 13세기)의 기록에서 샤수들이 살던 땅 (가나안)을 가리켜, “야오(를 섬기는) 샤수의 땅” (ta Shasww yhwaw) 이라고 부른다는 것입

니다. 또 다른 증거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사본들입니다. 기원후 3세기 이후에 기록된 그리스어 구약성경에서는 יהוה가 나올 때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쿠리오스’(κύριος, ‘주님’)으로 번역했지만, 기원 이전에 번역된 그리스어 구약성경(DSS 4Q120-4QpapLXXLevb)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어 알파벳 ΙΑΩ (YAW, ‘이아오/야오’)로 바꾸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아오/야오’와 비슷한 발음의 ‘야웨’가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이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진설명

- 1 쿰란 4번동굴에서 발굴된 그리스어 번역 레위기 4장 26~28절
- 2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영어 번역 성경
- 3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헤이-바브-헤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읽지 않아서 아무도 이 이름을 어떻게 읽는 지를 알지 못한다.
- 4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서 “요드-헤이-바브-헤이”가 나올 때마다 “주님”(아도나이)이라고 읽었다. 빨간색 점들이 히브리어 모음이다.
- 5 일군의 성서학자들은 “아도나이”의 모음 음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드-헤이-바브-헤이”에 붙인 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바) 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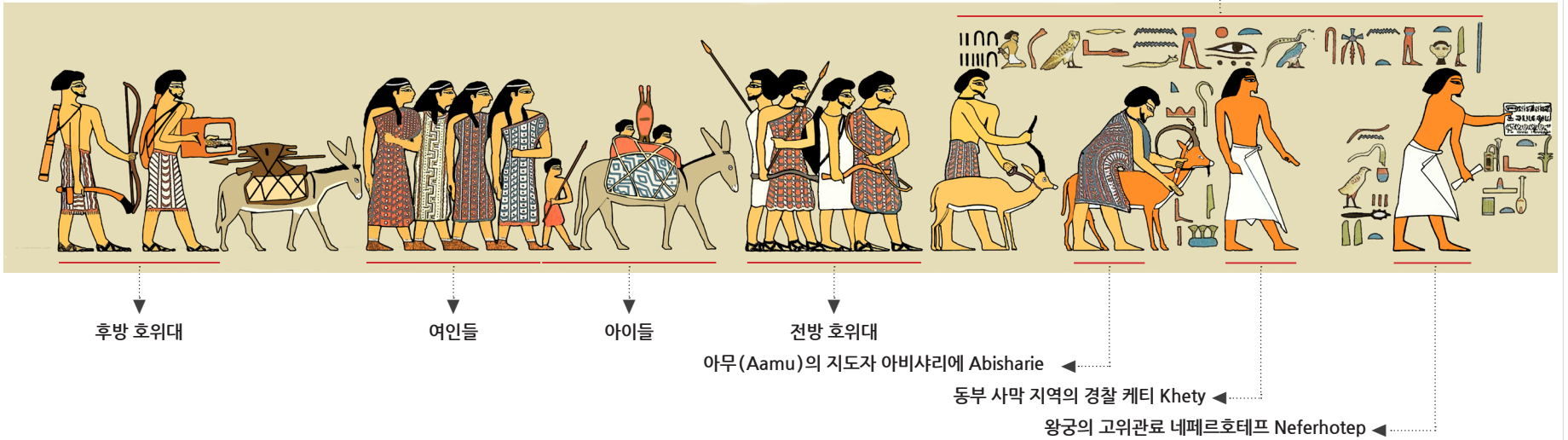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7 크눔호텝 2세의 무덤 벽화 (Beni Hassan 3)

“검은색 눈화장 안료(mesdemet)를 가져오기 위해서 방문하다 : 그는 서른 일곱명의 아무(Aamu)를 데리고 왔다”



▲ 이집트의 베니 하산(Beni Hasaan)의 무덤 지역에 있는 크눔호텝 2세(Khnumhotep II)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1

글자가 일반화 되기 이전까지 그림은 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림은 글자와 같은 정보 전달의 주요한 매개체였고, 그림이 담고 있는 정보는 글자가 전달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외모를 표현할 때, 글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한 사람의 외모를 서술하는 몇십 문장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은 글과 그림을 거의 함께 병행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글과 함께 그 상황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림 유산은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배경 정보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 놓기도 합니다.



2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진은 2013년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미니시리즈 ‘성경’ The Bible 의 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을 바탕으로 참 잘 묘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The Bible 더바이블”로 검색하시면 한글 자막으로 이 미니시리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제작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재구성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옷을 입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극이나 고대물 영화를 만들 때에 의상 감독들이 당대의 의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참조하고 의복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학자들은 책이나 병풍, 족자, 묘실의 벽화 등 남아있는 그림들을 바탕으로해서 고대의 의상들을 재구성 해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그림도 없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율법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형상들을 제대로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옷을 재구성할 때에는 베두인이라 불리는 유목민들의 전통의상을 밑그림 삼아 로마 사람들의 옷을 참조하고, 로마에 남겨 있는 벽화나 그림들로 색을 입혀 옷을 재구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대략 2,000년 전의 아브라함 시대의 옷은 도대체 어떻게 복원할 수 있단 말인가요?

감사하게도 이집트 나일강 중류의 베니 하산(Beni Hasaan)이라는 곳의 묘지 구역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차이가 없었음)을 묘사해 놓은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베니 하산의 묘지 구역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시기 즈음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2세(Senusret II : 통치 1897-1878 BCE) 때 네게브 지역과 사막의 동쪽의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던 지방 행정 장관 크눔호텝 2세(Khnumhotep II)의 묘실(BH3: Beni Hasan tomb No.3)이 있습니다. 묘실의 넓은 방은 크눔호텝 2세의 치적들과 그가 얼마나 이집트에서 유력한 사람인지를 장황하게 글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무(Aamu)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렬의 그림입니다. 이 행렬에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복장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완전히 다른 일곱명의 남자와 네 명의 여자, 그리고 3명의 어린이들이 당나귀 두마리와 바위 염소(Gazelle)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행렬 맨 앞에는 이들을 크눔호텝 2세에게로 데리고 가는 이집트 관리 두 명이 있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집트 상형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눈화장 안료(mesdemet)를 가져오기 위해서 방문하다: 그는 서른 일곱명의 아무를 데리고 왔다”



3

이 아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 보건데 요단 강너머 모압과 암몬 지역을 포함하여 가나안을 비롯한 지중해 동편 시리아에 이르기까지의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벽화에는 친절하게도 아무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아비샤리에(아비샤르)”라는 전형적인 셈어족(히브리어가 셈족 언어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가나안 지역을 기준으로 위 아래의 방대한 지역에 살던 셈족들이 아무들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모두가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새겨진 문양도 기하학적이고 화려하지요. 이런 옷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일상적인 옷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크눔호텝 2세의 묘실 벽화를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의 머리 모양은 이집트 사람과는 달리 턱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둥글게 깎았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 어깨가 드러난 긴 옷을 입었다”자, 그렇다면, 미니시리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옷은 고고학의 고증에 근거하자면, 시대를 제대로 반영한 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사진설명

- 1 크눔호텝 2세의 무덤 벽화 (Beni Hassan 3)
- 2 미니시리즈 ‘성경’(The Bible)의 한 장면
- 3 베니하산(Beni Hasaan) 지역과 가나안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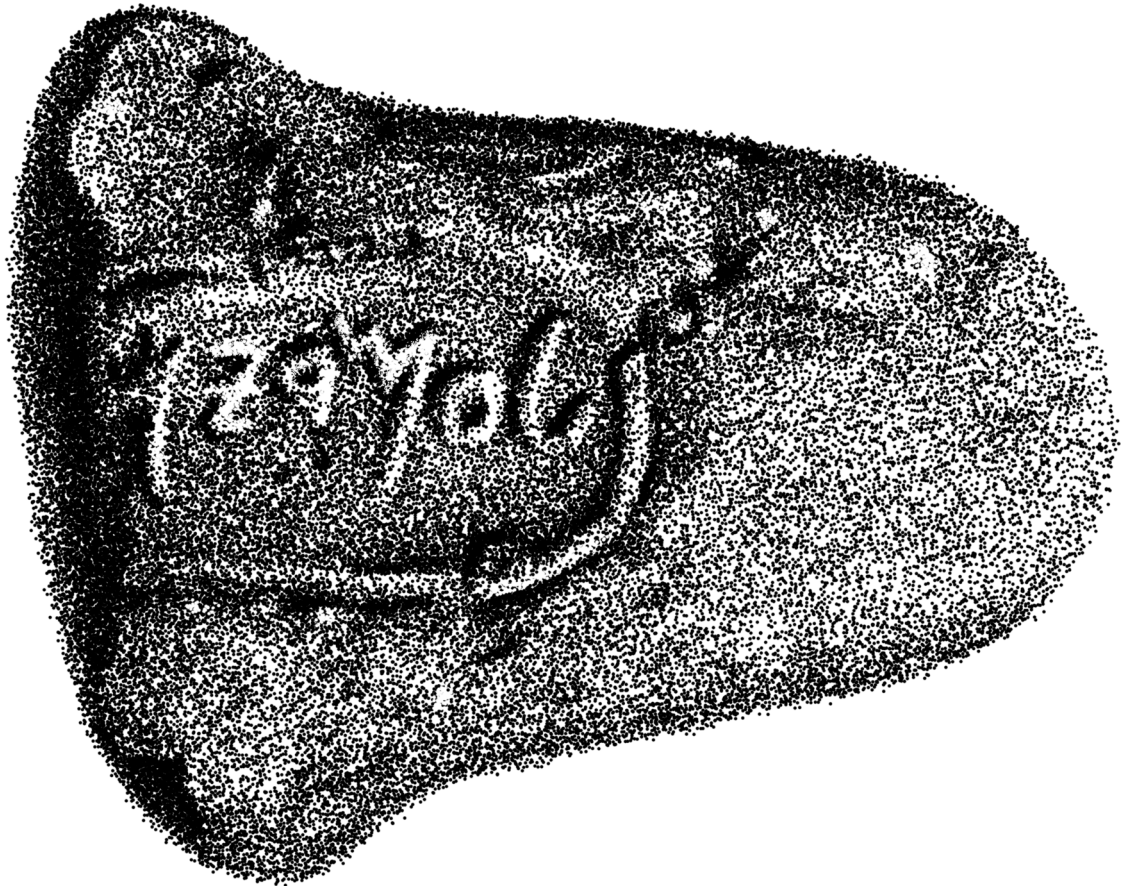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8 이마디아우 인장(Immadiyaw Seal)



이마디아우

~의 것

לעמדין

이마디아우의 것

1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읽다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남쪽 왕국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지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데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벤훈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왕상 12:28-29)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소가 그 자체로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벤훈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송아지를 상징하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고 추측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소는 또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소는 신이 밟고 서 있는 토대이자 그 신의 의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여로보암이 소 자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는 “너희

의 신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단과 벤훈에 만든 두개의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 금송아지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면 왜 ‘신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여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 너희들을 올라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신들’(복수)이라고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단수 일반명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속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렛(כפרת)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은혜의 보좌’ mercy seat 라고 번역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은좌’ 施恩座 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막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그룹들이 앉아 있는 법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고대 서아시아의 신앙과 뒤섞인 것입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벤훈과 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법궤는 하나이고, 그 법궤는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그 법궤는 대제사장 이외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하나님의 의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법궤를 보지 못한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그가 세운 제사장들은 신들의 의자 역할을 하는 송아지를 하나님의 의자인 법궤를 대신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나안과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 예배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 형식은 매우 이방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북왕국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2018년에 히브리유니언대학교 예루살렘 캠퍼스의 다비드 일란(David Ilan)과 이팻 타레아니(Yifat Thareani)가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던 텔 단(Tel Dan)을 발굴하면서 기원전 9세기의 층위(Level)에서 깨진 토기의 손잡이 부분을 발굴하였습니다. 기원전 9세기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 시기가 다윗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 시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원전 9세기 중반에서 8세기 초반때에는 아람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화와 아람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이 서로 혼합이 되던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토기에 새겨진 사람의 이름이 “이마디아우”였습니다.

“이마디”라는 말은 ‘나와 함께’라는 뜻이고, ‘야우’는 ‘야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줄여서 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장의 발견은 두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매우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기원전 8세기, 대략 720 BCE를 전후로 해서 북왕국이 앗수르에 멸망을 당한 뒤에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2018년에 발견된 이 인장에서는 이미 그보다도 대략 100여년 전부터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넣을 정도였으니, 보기 좋게 그 비평적인 학자들의 주장이 무너진 셈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국의 분열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가나안과 주변 국가들의 신앙과 혼합되어 변질된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사진설명

1 이마디아우 인장(Immadiyaw S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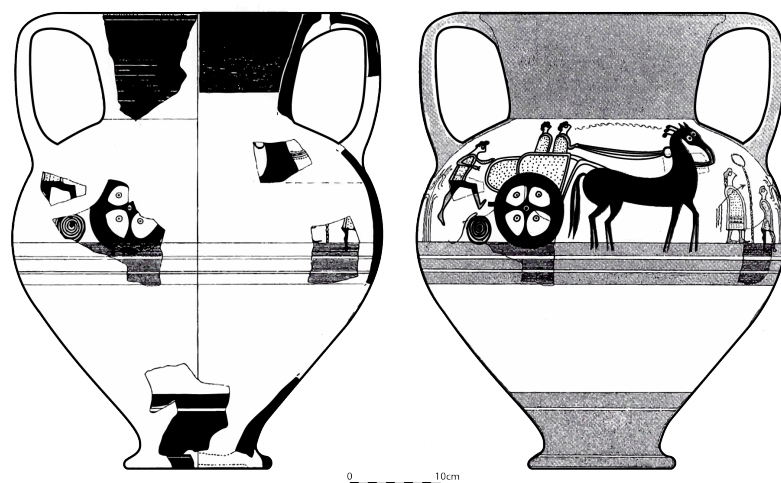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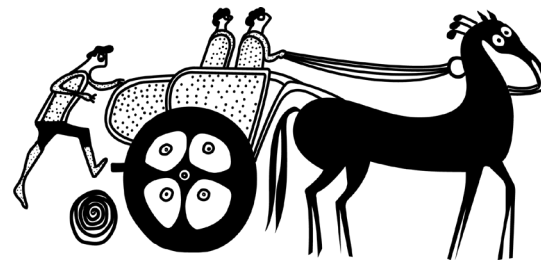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9 블레셋 병거(Mycenaean Krater)



▲ 텔단의 무덤(T387)에서 발견된 미케네 양식 토기

→ 두 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고 있고, 병거는 청동으로 무장되어 있다. 두 사람이 병거에 올라탔는데, 앞 사람은 고삐를 쥐고 있다. 이 병사들은 병거처럼 청동 갑옷 무장을 하고있다. 머리카락의 모양은 둥글둥글한 곱슬 머리인 것이 특징이다.



성경에는 모압, 암몬, 아모리, 아람, 아말렉 등 이스라엘 이외에 등장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의 도움으로 이 민족들의 삶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민족들의 특징이나 신앙, 민족의 인구수, 종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주변 민족 중에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진 가장 가까운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제일 처음은 블레셋입니다. 해양민족들 중의 하나인 블레셋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시기에 이들이 지중해 지역에 남겨 놓은 족적이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성경 외에도 이곳 저곳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대략 1175BCE 즈음에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그리스 본토에서 미케네 문명이라는 찬란한 문명을 이끈 사람들이었는데 기원전 1200년경 도리스 사람들이 이들이 살던 그리스를 침입하면서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 해상과 육상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민족입니다. 이들이 비록 도리스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나듯 가나안 지역의 해안 지방에 정착하기는 하였지만,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메르(Homeros)의 글과 그리스 지역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유물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미케네 사회가 탁월한 전쟁 기술을 보유한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무기 중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손꼽혔

던 것은 ‘병거’였습니다. 미케네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찬란한 문화를 만들 당시에 미케네 사람들은 청동기의 장인들이었습니다. 철기 문화의 시대를 개척하고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시작한 도리스 사람들에게 의해서 밀려나기는 하였지만, 미케네 사람들 역시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리스 사람들에게 비해 철기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리스 사람들 만큼 청동기가 세련되고 정밀하지 못했던 가나안에 비하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미케네 문명의 세례를 받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거, 그리고 병거를 주축으로 한 군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직 청동기조차도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이러한 블레셋의 병거가 어떤 모양이었던지는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케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기(Mycenaean bychrome)에 이 전차들의 모습을 그려 놓았거든요. 이 미케네 사람들의 토기는 지중해 곳곳에 수출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건너온 토기라고 하면 지중해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교역 물품이었습니다. 국제 교역로와 바다와도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의 산간 지역인 라이스(훗날, 단지파가 이 곳에 이주하였다고 하여서 텔 단(Tel Dan)이라고 불림)의 무덤(T 387)에서 조차 미케네 사람들의 토기가 발견될 정도이니 이 문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미케네 사람들의 토기가 가나안 지역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값어치가 나가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값나가는 것인지를, 죽은 이의 부장품으로 함께 매장했던 모양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 무덤의 주인은 1320BCE어간에 사망했고, 이 무덤에서 발굴된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1400-1320BCE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기 대략 15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기의 그림을 보면, 두 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고 있고, 병거는 청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병거에 올라탔는데, 앞 사람은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옷도 병거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거처럼 청동 갑옷 무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모양은 둥글둥글한 곱슬 머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미케네인들의 토기는 기원전 13세기말 12세기(대략 1200-1130BCE)에 걸쳐 사용되었던 라기스의 신전 터(Level VI, The Acropolis Temple)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라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한 유다 산지가 만나는 낮은 구릉 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신전이 사용되던 시기는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을 하던 시기이고, 아직 라기스를 점령하지 못했던 때였

습니다. 라기스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때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라기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이웃하고 있는 블레셋 도시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살았던 사람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하여 전쟁을 치루기도 했었겠지요.

이들의 신전에 발굴된 미케네인들(블레셋인들)의 토기 조각을 재구성 해보면, 워낙에 부분 조각이어서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미케네 문명의 세례를 받은 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종류의 토기들의 밑그림들을 바탕으로 재현해 보는데, 이 토기에 그려진 병거에는 세명까지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인들의 병거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한 마리 또는 두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었다. (2) 병거는 청동 또는 철갑 무장이 된 네개의 바퀴살을 가진 형태이다. (3) 병거에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탈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병거를 모는 사람이고 나머지 둘은 전투병이다. (4) 병거에 오른 사람들도 모두 청동 또는 철로된 갑옷을 입었다.

사진설명

1 텔단의 무덤(T387)에서 발견된 미케네 양식 토기
블레셋 병거(Mycenaean Kr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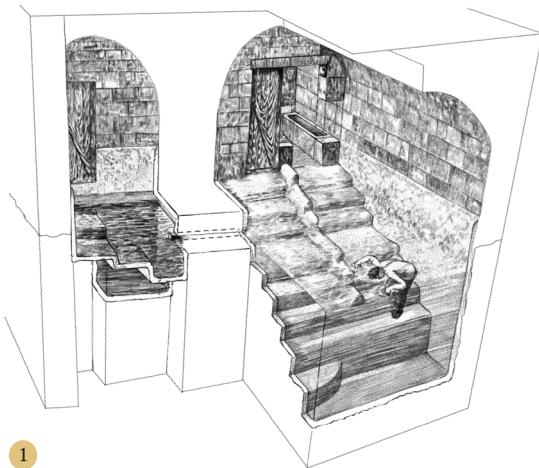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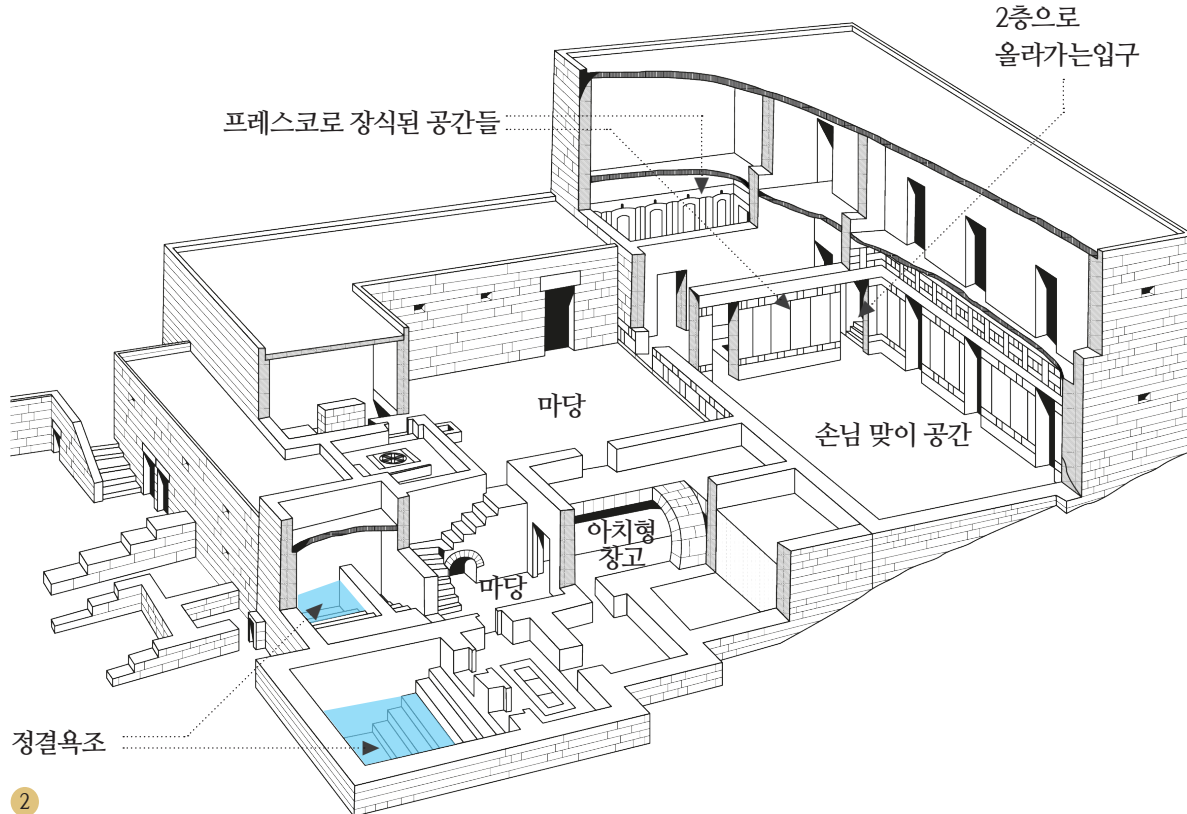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30 헤롯 구역(Herodian QuarterKrater)



▲ 헤롯 구역 집에서 발굴된 정결 욕조를 재현한 모습

‘헤롯 구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상부도시’의 집들은 현재 ‘볼 고고학 박물관’ Wohl Archaeology Museum 에서 관리하고 있다. 성전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집은 여섯 개의 집 중의 하나이며, 제사장의 집으로 추정된다.



1967년의 ‘6일 전쟁’이 있기 전, 예루살렘 성은 요르단인 팔레스타인의 후견자로서 실효 지배를 했습니다. 6일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시온 문(Zion Gate)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시온 문과 잇대어 유대인들이 살던 거주지역(‘유대인 구역’ Jewish Quarter)은 1948년 독립 전쟁이후 아랍 연합군들이 중요 건물들과 거주지들을 다이내마이트로 파괴를 하고 승리의 상징으로 폐허로 남겨 놓았습니다. 6일 전쟁 승리 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뒤에 유대인 거주지역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무적으로 먼저 고고학 발굴을 하고 난 다음 그 위에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 발굴은 히브리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나흐만 아비가드(Nahman Avigad)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부터 14년에 걸친 유대인 구역의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 구역 안에서 값진 고고학 발굴물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1971-74년 사이에 발굴한 여섯개의 집들은 아름다움의 백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두개의 언덕(언덕이라지만 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로 골짜기가 지나가는 형세입니다. 성전이 있는 동쪽의 언덕을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고(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성전이 세워진 산이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부름), 서쪽에 그 보다 높은 언덕을 시온 산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구역은 시온 산에 있고, 이 여섯개의

집들은 시온 산의 비탈에서 모리아 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집이 있는 시온 산의 비탈 위 쪽을 ‘예루살렘의 상부 도시’라고 부르는데, 헤롯 시대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은 이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 집들은 바닥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단층 또는 복층 집의 구조를 가지고 큰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거나 주랑들로 연결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의 곳곳에는 정결 욕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물을 씻어 정결하게 되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어야 하고(출 29:4; 레 16:4,24),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기 전에도 그레아했습니다(출 30:17-21).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환자가 낫게 되면 물에 몸을 씻어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레 14:8).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 집니다.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역시 몸을 씻음으로 부정한 상태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뿐 아니라 물건까지도 말이지요(레 15:5-12). 유출병(몸에서 뜻하지 않게 무언가가 흘러 나오거나, 또는 반대로 막혀서 나와야 할 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걸린 사람도 낫게 되면 물에 몸을 씻어야 했고(레 15:13), 생리를 하는 여성(레 15:27), 속죄일 제사를 마친 후 제물을 불사른

사람(레 16:28),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레 17:15),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사람(레 22:5) 등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 다양한 종류의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의 제사장의 경우나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물에 씻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몸을 씻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는 몸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디에서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부터 미크베(מִקְוֶה mikveh, miqveh)라는 이름의 정결 욕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의 율법에서 정결 욕조 규정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이 보편화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지역에서 정결 욕조와 정결 욕조에 물을 공급해 주는 물 저장고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발굴된 곳은 쿨란이라는 곳입니다. ‘야하드’ 공동체라는 소규모의 공동체가 살던 사해 서편의 작은 지역인데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쿨란의 정결 욕조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고고학자들의 마음을 가장 들뜨게 했던 정결 욕조는 바로 위에 말한 예루살렘 성의 유대인 구역에서 발굴된 정결 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주

인 때문입니다. 사실 그 건물의 주인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발굴 초기에는 그 아름다운 집들의 바닥 모자이크들의 문양이 마사다의 헤롯 궁전과 비슷해서 그 건물들이 헤롯 궁전의 일부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발견된 지역을 ‘헤롯 구역’ Herodian Quarter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집들의 바닥에서 기하학적인 문양들만 나오고 헬레니즘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문양들이 발굴되지 않는 점, 정결 욕조들이 작은 구역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점, 집들이 매우 호화로운 점, 그리고 성전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는 점, 시온 산의 최고 정상이 아닌 곳에 위치한 점들을 고려하여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호화로운 건물의 소유주가 제사장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제사장들의 정결 욕조인 셈입니다.

이름은 정결 욕조이지만, 그 욕조의 역할은 단지 한 사람의 상태를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꾸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결 예식은 욕조에 몸을 담고 나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것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와 만나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 말이지요. 2021년은 날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작년과 다른 새로운 은혜의 해(年)를 맞이하시길 기대합니다.

사진설명

- 1 헤롯 구역 집에서 발굴된 정결 욕조를 재현한 모습
- 2 헤롯 구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상부도시’의 집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31 회당(Synagogue)



“

‘회당’이라는 용어로
완전 고착되기 이전에...
프로슈케(προσευχή 기도하는 곳)
하기오이 토포이(Ἅγιοι Τόποι 거룩한 곳)
카할(קהל 모임)
베트 (하)크네셋(בית (ה) תפילה)
때로는 콜레기움(Collegium)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갑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산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까지 (70CE)는 성전에서 제의를 드렸지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로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회당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과 회당이 공존했거든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생겨났고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랍비들이 회당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딱히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회당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필로, 요세푸스). 회당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첫 번째 사람 모세로부터 회당의 유래를 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 중에 회당 제도가 생겨났다는 견해입니다(Sionius, Mene, Friedländer).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이나 유다 땅에서 쫓겨나 지중해 주변 지역으로 떠난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성전 기능의 일부인 기도와 율법의 전수를 대신하는 회당의 제도가 생겨났고 유다 사람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

가 1970년대까지 회당 제도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시아 시대(640~609BCE) 이후 회당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Morgenstern, Weingreen, Löw) 요시아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특징은 제의의 중앙화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는 것이지요. 요시아 이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산당에서 제의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가 커지면서 요시아가 제의를 예루살렘으로 집중시킨 거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제의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신앙 교육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안식일 마다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교육의 장이 산당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지되면 신앙의 두께가 얇아지게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회당 제도이며 이 회당 제도의 뿌리는 성문 어귀에서 모이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의 견해와 그 논지의 흐름은 비슷하지만 회당 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를 요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ca.140~37BCE)로 보는 것입니다(Hengel).

다섯 번째,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론이기는 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뒤(70CE)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Kee, Cohen).

수많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있지

만, 그 주장을 뒷바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연구하는 연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유대교 회당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론가들은 회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에 주목했습니다.

회당은 (1)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제의적 기능, (2)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정의 기능, (3) 유대인 공동체가 공동으로 어떤 결의를 할 때 회의를 하는 장소로의 기능, (4) 특별한 안건을 가진 회의라 부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하는 모임의 장소로서의 기능, (5) 먼 지역의 유대인이 자기 지역으로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숙박을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기능들을 말하고 있는 고대의 문서들을 찾아 연구하면서 회당의 역사를 추적하였고,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유대인 거주 지역들을 발굴하면서 회당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고학 유물이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회당은 아마도 기원전 3세기에 쉐디아(Schedia)와 카이로(Cairo)에 세워진 기도처(προσευχή 프로슈케)일 것입니다. ‘프로슈케’는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입니다.

‘수나고게’ συναγωγή 라는 말이 ‘회당’이라는 용어로 완전 고착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기도와 율법의 연구, 그리고 일반적인 공동체의 만남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함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

된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슈케’(기도하는 곳), ‘하기오이 토포이’ Ἅγιοι Τόποι(거룩한 곳), ‘카할’ קהל(모임), 그리고 ‘베트(하)크네셋’ בית (ה) תפילה 이었습니다(때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콜레기움’ Collegium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집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와 모임을 갖는 장소를 ‘프로슈케’라 불렀는데, 기원전 3세기의 회당(프로슈케)을 건설한 내용의 비문이 발굴 됨으로 회당의 역사를 증명하는 고고학 유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라트룬(Latrun)과 모디인(Mod'iin) 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의 회당을 발굴하였습니다.

문서 고고학과 현장 고고학의 도움으로 회당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회당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이후 성경 읽기가 성전을 벗어나 장소와 절기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가능해진 이후로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대아(Judea) 지역과 디아스포라 모두에 있었으며, 건물의 양식이나 구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자유로웠다.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던 시기에 성전은 주로 제의의 기능을 그리고 회당은 율법 연구와 규칙적인 모임과 기도의 장소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성전 멸망 이후에는 회당이 유대교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진설명

1 골란고원의 가믈라(Gamla)에 세워진 1세기 회당(Synagogue)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